

21일 Market Index			
코스피	2388.35	코스닥	802.53
	(+9.15)		(+3.44)
금리 (미국 9년)	3.294	환율 (원·달러)	1311.20
	(+0.030)		(+1.10)



사람 대신 車 충전, 위험현장 투입 산업경계 허무는 로봇에 미래건다

‘로봇사업’ 생태계 구축 총력전

2030년 로봇시장 831억弗 예측
현대차그룹, 美 로봇기업 인수 등
대규모 투자·기술개발 드라이브
삼성전자도 로봇경쟁 본격 합류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공간에서 4족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로봇이 현장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다닌다. 특히 로봇은 컨트롤러와 열화상 카메라, 방사선 감지 센서 등을 탑재해 눈으로 감지하기 힘든 사각지대나 위험 지역에서 문제가 감지되면 실시간으로 본부에 이를 알린다.

국내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전자회사와 모빌리티 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전자와 자동차, 통신 등 주력 사업을 벗어나 ‘로봇 사업’을 놓고 진검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현대자동차와 LG전자가 선점한 로봇 시장에 삼성전자가 합류했으며 두산과 한화, 포스코 등도 로봇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로봇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고 다양한 로봇 전문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282억 달러 규모인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2030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충전기의 케이블을 대신 들어 차량 충전구에 체결해주고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외팔형 전기차 충전 로봇을 공개했다. /현대차그룹

년 831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국내 고용 규모는 2021년 3만1000명에서 2030년 3만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글로벌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국내 기업 가운데 로봇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기술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AI와 로봇 분야를 5대 미래 혁신 성장 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다. 현대차는 2018년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과 2021년 서비스

로봇 ‘DAL-e(달이)’ 등을 선보이며 로봇 개발에 나섰다. 또 ‘로봇 AI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2021년 6월 미국의 로봇 전문 기업 보스턴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주목받았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2족, 4족 보행 로봇은 물론 물류 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로봇개’로 알려진 4족 보행 ‘스팟’과 2족 직립 보행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을 개발한 회사다.

스팟은 관절을 뒤로 향하는 염소를 모델로 유연하게 움직이고 다양한 지형 이용과 우수한 균형 및 복원력을 갖고 있다. 시각·음향·온도 감지 센서와 스테레오 카메라 등을 탑재했다. 현재 스팟은 기아 공장과 GS건설 등 현장에 투입돼 위험 구간의 유해가스나 열화상을 감지하는 등 안전 관리 등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아틀라스’의 미래를 암시하는 새로운 동작 영상 ‘아틀라스 감을 잡다’를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에서 아틀라스는 작업 도구 상자를 들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 목표 위치에 던지고 내려놓는 동적 등 실전 능력을 선보였다.

또 현대차는 전기차를 주차하면 로봇이 자동으로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기술도 공개했다.

〈4면에 계속〉

/양성호 기자 ysw@metroseoul.co.kr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규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뷰티 1번지’ 명동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뉴시스

북적이는 중국인 관광객들 매주마다 2배·3배씩 늘어

르포 활기 되찾은 ‘명동’

중 입국자수 전년비 430% 폭증
상권 상가들 입점 준비로 요란
상가 공실률 30%대 후반대 유지
상반기 절반 수준까지 감소 기대

21일 정오,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은 커다란 여행 캐리어를 끄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볐다. 명동 안쪽에 위치한 숙소로 향하는 사람들이었다. 지난 3년 여 시간 동안 평일 낮 시간대 이곳은 점심을 먹기 위해 나온 주변 직장인들뿐이었다. 골목마다 영업을 중단한 채 방치된 상점은 더욱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엔데믹(풍토화) 1년, 명동의 오늘은 관광객들의 들뜬 기대와 노점을 준비하는 상인들로 들쭉였다.

‘명동’이 살아났다. 텅텅 비었던 상가 건물에 요란한 공사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날 명동 상가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사무소 직원 김유균씨는 공사를 마치기에는 빠듯한 날짜에 신경이 곤두서있었다.

김씨는 “관광객들이 주마다 2배, 3배씩 늘어나는 분위기”라며 “고객(상가 점주)이 최대한 빨리 끝내달라고 재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또 다른 점포인 테리어를 했었는데, 같은 때 서너개 점포가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 분기인 2019년 4분기 명동 상권 내 상가 공실률은 4.3% 수준으로 서울 전체 평균인 6.9%

보다 적었다. 그러나 2020년 2분기부터 가속화한 상가 공실률은 2020년 4분기 22.3% 수준(서울 평균 8.8%)까지 치솟은 데 이어 2021년 4분기에는 50.1%까지 기록했다. 상가 2개 중 1개는 비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상가공실률은 지난해 1분기에 40%까지 떨어진 후 쯤 30%대 후반을 유지 중이다. 3월 현재 상가의 많은 수가 입점을 준비 중인 만큼 상반기 중 공실률이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권이 살아나는 데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방한 외국인 수가 배경에 있다. 지난 1월 한국관광공사에 집계한 방한 외국인 수는 43만4429명으로, 지난해 1월 8만 1851명 대비 430% 늘었다. 명동 상권의 가장 큰 손으로 꼽혔던 ‘유커’ 중국인 입국자 수는 지난 1월 2만4946명으로, 지난 2019년 1월 39만 2814명의 7%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한국 항공 노선 재개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사들도 속속 늘어나는 매출과 플래그십 스토어 개점 소식을 알리고 있다. CJ올리브영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17일까지 명동 내 5개 매장 매출 데이터에서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배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날 CJ올리브영에서 만난 베트남인 관광객 A씨는 “(그룹)르세라핌의 팬”이라며 르세라핌의 멤버 허윤진이 모델을 맡은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웨이크메이크의 화장품을 구경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 민의 반영”

“노동 약자 건강보호 차원
확실한 담보책 강구 할 것”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서두르지 않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제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하겠다”며 “특히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금씩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과방위,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 與 퇴장 속 野강행
▲ 이재명, 민평련 간담회서 “당은 다양한 성이 본질… 시너지 원천” /사진 뉴시스

▲ 美공군장관 5년 만에 방한… 공군총장과 인태 안보 환경 논의
▲ ‘MZ 지지율 하락’에 비상걸린 與… ‘청년지지 회복’ 대책 부심



▲ 김진표 “선거제 개편 반대 세력, 내년 총선서 심판 받을 것” /사진 뉴시스
▲ 여당, 야 ‘굴욕외교’ 비판에 “친북·훈남 외교 말고 한 게 있다”

산업부문 NDC 하향 조정... 2027년까지 CCUS 90兆 투입

〈온실가스 감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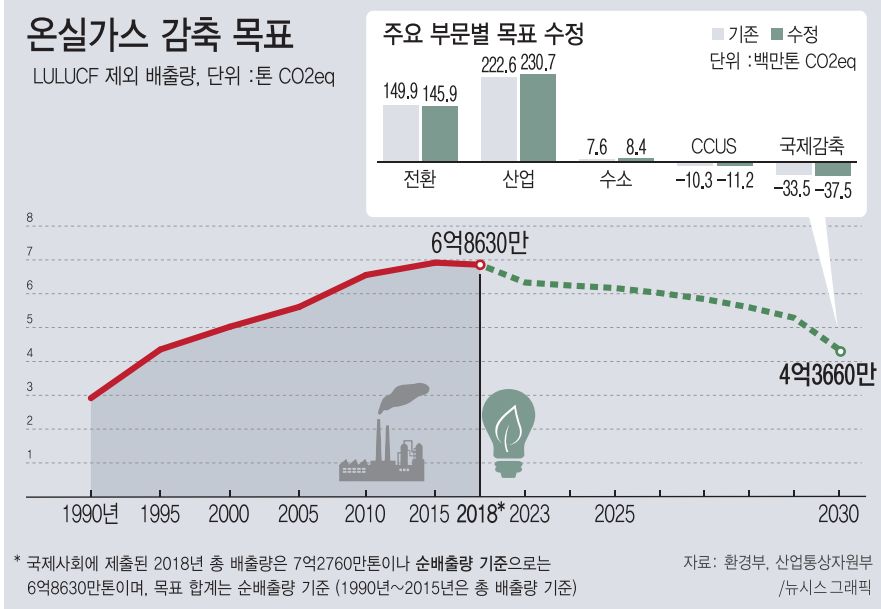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文 정부 2030년 총 NDC 동일
원전발전 비중 23.9%→32.4%
차기 정부에 떠넘기기 지적도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11.4%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감축 목표치였던 14.5%보다 축소됐다. 그런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배출량 4억3660만t) 감축한다는 목표는 동일하게 유지됐다. 결국, 나머지 온실가스 감축 분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 몫이 됐다.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안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을 담았다.



산업 부문의 경우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1.4%(배출량 2억3070만t) 감축으로 설정됐다.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800만t 가량 더 배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난 2021년 10월 목

표로 했던 14.5%(배출량 2억2260만t) 감축 안보다 축소됐다.

이 밖에 수송(37.8%)과 농축수산(27.1%), 폐기물(46.8%), 나머지 건물(32.8%), 흡수원(-2670만t) 등 5개 부문

은 기존 NDC 수준과 같다.

특히,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총 NDC 40% 감축(배출량 4억3660만t)목표는 기존 정부 안과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산업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감축 목표치를 축소하면서도 7년 뒤 목표치는 그대로 뒤 '조삼모사'이자 차기 정부에 부담만 떠 넘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원료 수급,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기존 23.9%에서 32.4%로 늘리기로 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2%에서 21.6% 이상으로 줄였다.

또, 그린리모델링 누적 160만건, 제로에너지 건축물 누적 4만7000건 달성, 무공해차 누적 등록 비중 16.7%(450만대), 수소차 30만대 등도 이행해 나가기

로 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 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며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예산 총 89조9000억원 규모로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과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수소차 보조금,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에 54조6000억원이 편성된다. 기후적응 분야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 6조5000억원 등도 예정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2일 이번 정부 안 관련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 시민단체·청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서비스·공산품 가격 상승에 2월 생산자물가지수 0.1% ↑

한은, 다음달 물가 둔화폭 축소 전망
전력·가스·수도·폐기물 0.3% 하락

지난달 우리나라의 생산자물가지수가 한달 전과 비교해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도시가스와 축산물 가격이 내렸지만 서비스와 공산품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한달간의 시차를 반영해 3월 소비자물가의 둔화폭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42로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지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자물가지수 중 서비스는 0.3% 상승했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는 0.6%, 부동산서비스는 0.5% 오른 영향이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1.0%)이 내렸으나 화학제품(0.6%)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반면 지난달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0.3% 하락했다. 농림수산물도 축산물(-3.2%)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2% 내렸다.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124.26으로 원재료(1.3%), 중간재(0.7%), 최종재(0.5%)가 모두 올라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공급물가지수는 국내에 공급(국내 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의 생산단계별로 구분해 측정하는 지수로,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해 산출한다.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출물가를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는 119.49로 공산품(0.6%)과 서비스(0.3%)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다이소 명동역점 점포 '12층 규모' 확장

≫ 1면 '활기 되찾은 명동'서 계속

아성다이소도 지난 1월 1년간 휴점하고 리모델링에 들어갔던 다이소 명동역점을 재개점하면서 기존 5층 규모였던 점포를 12층 규모로 키웠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점에 이은 두 번째로 큰 매장이다. 초대형 매장으로 재개점하면서 국내외로 관심을 끌어 휴일 오후에는 계산을 위해 한참을 기다려야 할 만큼 붐비고 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외국인 방문객 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명동 상권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명동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FIFA 1904, 뉴발란스, 나이키, 아이더, 슈마커플러스, ABC마트 등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K-콘텐츠 열풍이 불었던 만큼 명동을 찾는 관광객에 의한 수입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Going Green For Next Generation

내일도 자연처럼

자연은 언제나 스스로 도전합니다.

새로운 햇살, 새로운 바람
새로운 물, 새로운 에너지로
자연은 매일 새롭게 태어납니다.

생명의 터전을 짓고 가꾸어 온 지난 30년,
누구도 바라보지 못했던
더 높은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포스코건설이 포스코이앤씨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연을 지향하며
자연처럼 새롭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이 포스코이앤씨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EXPO 2030 BUSAN

포스코그룹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posco
포스코이앤씨

소·부·장 산업 육성 가속… “바이오·미래차 공급망 강화”

〈소재·부품·장비〉

산업부, 관련 공모절차 오늘 개시
지난 2년간 기존 특화단지 5곳서
생산액 26%, 수출액은 47% 상승

“단지별·분야별 맞춤형 지원 강화”
오는 7월 특화단지 선정지역 발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2년 전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올해 바이오와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지정 관련 공모 절차를 22일 개시해 내달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앵커(수요)기업을 중심으로 소부장 기업들을 집적해 기업 간 협력 생태계조성과 기술자립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바이오캠퍼스 조감도.

화를 위해 추진됐다. 2021년 2월 반도체, 이차전지 등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가 첫 지정됐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경기용인(SK하이닉스), 이차전지는 충북청주(LG엔솔), 디스플레이는 충남 천안아산(삼성DS), 탄소

소재는 전북전주(효성첨단소재), 정밀기계는 경남창원(두산공작기계 등)이다.

이들 5개 소부장 특화단지에는 수요-공급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997억원),

테스트베드 구축(995억원), 기반시설 지원(290억원), 실증센터(2170억원), 펀드(150억원), 전문인력 양성(48억원) 등 약 47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난해 4분기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에 따르면, 앵커기업 등 주요 기업 투자를 기반으로 지난 2년간 전체 특화단지 생산액은 26%, 수출액은 47% 상승했고, 약 5000명의 고용 증가, 261개 기업 집적화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지정을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현재 5개 특화단지 분야에서 바이오, 미래차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로 특화단지 추진성과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기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도 지역 산업 경쟁력과 단지 경쟁력, 지정필요성 등을 고려해 추가지정을 검토한다.

산업부는 “인프라·투자·연구개발·사

업화 등 신규 특화단지 조성을 전폭 지원해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원소재 공급·생산, 수출경쟁력 지원 등 단지별·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는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확보 등 법령상 지정요건을 중심으로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생태계, 기업 투자계획 등을 종합 평가한다. 필요시 현장실사나 발표평가 등도 이뤄진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특화단지 선정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빅테크, 현지성장 기대감 ↓ 韓·유럽 등 해외시장 눈길

● 차이나 뉴스&리포트

규제 개선 지지부진… 경기침체 겹쳐
알리익스프레스, 韓 1000억 규모 투자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규제는 크게 개선될 기미가 없는 반면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 등으로 중국 내에서는 성장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게 되면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가운데 스페인을 기점으로 유럽 시장을 본격 공략키로 했으며, 미국에 진출한 핀뒤의 티무는 아마존의 상대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2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알리바바그룹의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는 스페인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초이스 서비스’의 출시 행사를 갖고 9일 내 배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를 위해 스페인행 전세 항공편을 주당 9회로 늘리기로 했다. EU 시장에서는 물류 허브인 벨기

에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횟수다. 스페인 내의 상품 픽업 포인트도 현재 5000곳에서 이달 말까지 75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알리익스프레스 개리톱 유럽 책임자는 “일부 상품에 특화된 경쟁업체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시장에서 가장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해 왔다”며 “물류와 무료 반품, 할부결제, 상품 선택 및 품질, 가격 보장 등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달 초 한국에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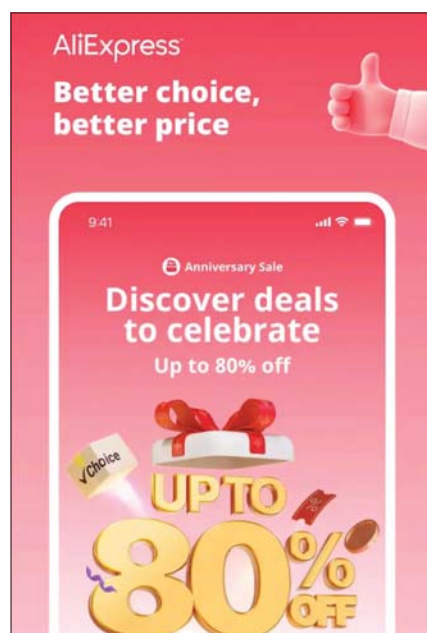
알리익스프레스 레이장 한국 대표는 당시 “한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며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해외직구의 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쇼핑처럼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일일 활성 사용자는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했다.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경쟁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해외 시장으로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핀뒤의 쇼핑 앱인 티무(Temu)는 미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의 진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티무는 아마존과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되는 앱으로 집계됐다. 핀뒤의 공급망을 활용해 중국 제품을 미국 소비자에게 초저가로 공급하면서 작년 9월 출시된 이후 단시간 내에 급성장했다.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 역시 일부 정치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틱톡삼으로 영국과 미국 등에서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앱 화면 캡처.

/안상미 기자 smahn1@

KB 금융그룹
국민의 생명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아이 몸은 튼튼하게
아이 맘은 행복하게
상해질병도 마음건강도 중요하니까

KB
금쪽같은 자녀보험
특허청 상표권 획득
(등록번호: 제 40-1846813 호, 2022.3.18)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제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담보의 경우 주기는 3,10,15,20,30년이며 최대 갱신 종료 나이는 110세입니다. 또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연령증가, 위험률 증가 등 변동에 의해 갱신 시점 연령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 계약(갱신전)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70396호(2022.06.28~2023.06.27)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 고객센터 : 1544-0114

KB 손해보험

바리스타·방역·환경관리... 이통사 'AI생활형 로봇' 승부수

SKT, 고객 맞춤형 AI 로봇키트 출시
KT, '디지코'로 변화 기업가치 ↑
LGU+, LG전자와 로봇 사업 추진

이제 식당을 방문하면 로봇이 서빙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대형 쇼핑몰이나 공항을 가면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배송로봇이 직접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객실 앞까지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해준다. 또 밤에는 깜깜한 공원을 순찰로봇이 돌며 방문객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지 확인하고,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경우, 바로 보안요원을 호출하게 된다.

이동통신사들은 로봇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고 다양한 로봇 전문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AI(인공지능) 바리스타로봇, 방역로봇, 환경관리로봇 등 로봇 제품 출시에 나서고 있다. 이통사들이 로봇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SKT가 최근 출시한 AI 바리스타로봇을 통한 서비스 이용 모습. /SKT

21일 시장조사업체인 브랜드에센스마켓리서치앤컨설팅에 따르면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44조원 규모에서 2027년 177조원으로 4배 가량 급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282억 달러 규모의 현 로봇 시장은 2023년

831억달러 규모로 13%의 고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인건비 급등으로 생산라인에 로봇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글로벌 로봇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로봇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는 로봇 사업을 통해 고객사에서는 필요하지만 로봇 제조사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AI 기반 응용 솔루션과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T는 개인은 물론 기업 고객들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여주고, 즐거운 경험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로봇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SKT는 우선 이번엔 AI 로봇키트를 출시해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2배 이상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SKT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경쟁력 있는 가격 정책을 통해 로봇키트 보급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SKT는 또 SK칠더스, 로봇 전문업체인 뉴빌리티와 AI 순찰 로봇을 공동 개발해 연내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도봉구 덕성여대 쌍문근화캠퍼스에서 AI 순찰 로봇에 대한 이 로봇에 대한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KT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디지코(DIGICO)'로의 변화를 선언하며, KT의 ABC(AI/빅데이터/클라우드)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고객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KT AI 로봇 사업단이 2021년 출범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디지털 혁신(DX) 가속화를 위해 로봇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AI 기반 로봇을 향후 핵심적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AI, 네트워크, 자율주행, 원격 관제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로봇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해, 고

객 경험을 혁신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앞으로 배송과 물류, 환경, F&B 등 신규 영역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KT는 또 최근 캠핑톡, 캠핑아웃도어와 MOU를 체결하고 캠핑장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에 나선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사는 캠핑장 자율주행 배송 로봇 서비스의 저변을 넓혀갈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환경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클라우드 로봇과 5G 로봇이 도로 공사현장에서 이용해 실증하는 데 성공했다. 또 약제로봇을 병원에 공급하는 등 로봇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서울시 서초구 LG전자 R&D센터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기반 5G 코어망과 LG전자 로봇 서비스를 통합 수용한 일체형 MEC를 통해 클라우드 로봇의 자율주행을 실증했다. 클라우드 로봇(브레인리스 로봇)은 주로 LTE 이동통신을 통해 구현됐지만 높은 지연시간 때문에 즉각적인 위험감지와 장애물 회피 등 안정적인 주행이 어려웠다. 하지만 LG전자의 5G SA(단독모드) 산업용 단말이 장착된 클라우드 로봇은 건물벽이나 출입문 등 주변 환경을 측정해 지도를 생성하고, 움직이는 장애물을 인지해 회피하는 등 주변 상황에 즉각 대응한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LG전자와 함께 서빙-배송-안내 서비스 관련 로봇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서빙로봇 LG 클로이 서브봇을 연내 상용화하고, 로봇 라인업을 지속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LG전자, 로보스타 인수 등 로봇육성 집중

>> 1면 '사람 대신 車 충전'서 계속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은 전기차 충전기의 케이블을 직접 차량 충전구에 체결해주고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외팔형 로봇이다.

LG전자는 로봇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점찍고 사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LG전자는 2018년부터 산업용 로봇 업체인 로보스타 경영권을 인수하는 등 로봇 사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후 엔젤로보틱스, 로보티즈, 아크릴, 보사노바로보틱스 등 글로벌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를 이어갔다.

LG전자는 2019년 로봇산업센터를 신설했고, 2020년 초에는 'LG 보스턴로보틱스랩'을 설립했다. 지난 2020년 연말 조직 개편에서 로봇사업센터를 비즈니스솔루션(BS) 사업본부 내 로봇사업담당으로 재편해 이관했다. BS사업부는 로봇·AI 등 미래 기술을 담당하는 부서인 셈이다.

LG전자는 로봇 사업과 함께 스마트팩토리(지능형 자율공장)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는 제품의 제조와 검사, 포장 등 전체 생산공정을 자동화해 생산성과 품질 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로봇 개발업체 지분을 매입하며 '로봇' 시장 경쟁에 본격 합류했다. 삼성전자는 2021년 로봇사업화 테스크포스를 '로봇사업팀'으로 격상한 뒤 관련 사업을 본격 준비해왔다. 지난 15일에는 국내 최초 이족보행 로봇을 개발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 4.8%를 277억8365만원에 사들이며 인수 의지를 드러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카이스트 휴머노이드로봇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설립한 기업으로, 다족보행 로봇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이족보행 로봇, 사족보행 로봇, 협동로봇 등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가장 큰 경쟁력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그룹과 LG전자, 삼성전자, 두산이 외에도 다른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화와 포스코ICT가 협동로봇 기업인 뉴로메카 인수를 준비하고 기업으로 지목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LG전자, 삼성전자, 두산이 외에도 다른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뛰는 ETF 위에 나는 NH다이렉트인덱싱



>> 1면 '기사제목'서 계속

NH전문가 추천 인덱스를 마음대로 조정하자
내가 원하는 종목은 더하고! 내키지 않는 종목은 빼고!

ETF로 부족할 때 NH다이렉트인덱싱

[투자주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은 시장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 수익률 시뮬레이션(백테스팅) 결과와 실제투자 수익률은 세금, 수수료, 매매시점, 매매수량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수익률 시뮬레이션(백테스팅) 결과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 국내 주식매매 시 수수료는 연 0.01%~0.50% 오프라인 0.40%~0.50% (수수료 선택지) 반올림(종가래금액별 / 매체 별 상이)이며 기타 수수료에 대한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문서비스계약 체결 시 수수료는 연 0.5%로 보기 단위로 후취하며, 일본기 첫 영업일에 징수합니다. ※ 증권거래세(종가)는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거래 시 보수(ETF별상이)가 추가 발생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금융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0375호 (2023-02-07 ~ 2024-02-08)

투자, 문화가 된다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일상의 금융에서 일생의 금융으로

원하는 삶을 위해
견뎌야 하는 오늘의 무게도
농협금융과 함께 나누면 더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모여서
특별한 일생이 될 수 있도록

금융의 모든 순간
함께하는 100년 농협



오늘의
무게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금융이 응원합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스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김기현-최재형 비공개 만남… 6대 혁신안 수용 ‘이목집중’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김 대표, 혁신위 활동경과 보고 받아
최 혁신위장, 혁신안 수용 의견 전해
“국민께 당 변화하는 모습 보여지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최재형 당 혁신위원장으로 부터 6대 혁신안을 보고 받았다. 지난 이준석 지도부 당시 출범한 혁신위가 마련한 혁신안을 김 대표가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최 혁신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나 그간 혁신위 활동 경과와 6대 혁신안을 보고 받았다.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이준석 당시 대표가 ‘공천 개혁’ 등을 이유로 출범시킨 혁신위는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활동했다.

혁신위가 마련한 6대 혁신안은 ▲공직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관 ▲공직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 강화·공직후보자 기초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격평가(PPAT) 확대 ▲온라인 당원투표제·민생365위원회 도입 ▲상설·특별위원회 개선 ▲국회의원 정기간평가제 도입 ▲비례대표 공천 이원화(공관위 50%·전국위 50%) 및 여의도연구원 개선 등이다.

최 혁신위원장은 김 대표에게 6대 혁신안을 보고 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한 혁신위 활동 경과, 혁신위가 마련한 혁신안에 대해 새 당 지도부에 보고하는 자리였다.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당 대표에게 연락해 혁신안을 보고드리겠다고 했고, 오늘 시간을 내줘서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혁신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보고 했고, 특별히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했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혁신위는 당의 총선 승리, 국민에게 지지를 계속 받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혁신안으로 마련했기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혁신위원장은 김기현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했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혁신안 수용 불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최 혁신위원장은 ““저를 비롯한 혁신위원들은 당의 지속적 혁신과 개혁만이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에게 지지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꼭 정비돼야 할 부분, 새로 마련해야 할 부분에 대해 혁신안을 작성한 것”이라며 “저희는 이 혁신안이 다 수용돼 우리 당이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최 혁신위원장은 “혁신안 주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한 견해가 있기에 (새 지도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소 변형된 형식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재차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해달라는 뜻도 애둘러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이재명 “모태펀드 예산 삭감, 납득 어려워… 필요시 추경이라도 해야”

〈더불어민주당 대표〉

SVB 대응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이 대표, 강남 ‘팁스타운’ 방문
“경제는 심리… 신뢰 제고 역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벤처·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나 모태펀드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정부가 벤처와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언제든지 든든히 응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란 투자자가 개별 기업이 아닌 펀드에 출자해 투자위험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를 만들어 벤처캐피털이 운영하는 창업투자조합에 투자를 하고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 배정된 2023년도 모태펀드 예산은 3135억원으로 지난해 5200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팁스타운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태홍 기자

원과 비교해 약 40%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모태펀드 운영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침체에 벤처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최근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하면서,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스타트업들이 입주해있는 서울 강남 ‘팁스타운’을 찾아 “실리콘밸리은행이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주로 담당하던 은행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종사하는 관련 기업들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벤처·스타트업들이 통계로 보니까 올해 1월 신규 벤처투자액이 2579억 원인데, 작년 같은 기간 1조6400억에 비하면 80% 이상 급감한 수치라고 한다. 거의 가뭄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이 대표는 모태펀드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올해 모태펀드 예산은 40% 삭감된 것이다. 4배로 늘려도 부족할 판인데 모태펀드 예산을 40% 삭감한 정부의 방향, 방침을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다”면서 “경제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모태펀드 예산을 복귀하거나 늘려나가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이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로 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투자펀드 자금 편성 사례를 설명하며 정부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손을 떼니 광야에 혼자 외롭게 서야 하나 생각할 수 있다. 스타트업이 가지는 위압감과 심리를 이해 못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경기도에서 투자펀드 자금을 편성한 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신뢰도가 높았다.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다. 지금 상황이라 무리 좋아도 미래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시장의 특성 중 하나가 불확실성이 커지면 모든 것을 회피하게 돼 있다. 안정이 될 때까지 불확실성을 제거해 신뢰를 제고하는 역할을 사실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尹 “한일관계, 대통령으로서 책무… 양국 공동이익 증진”

국무회의서 정상회담 입장 표명
굴욕·송일외교 비판 정면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등 일본 순방과 관련 야당과 시민단체가 ‘굴욕외교’·‘송일외교’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임 정부는 악화된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듯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밝힌 논란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 말을 인용하며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며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라며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를 비롯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고,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시킬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의 경제안보대화는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자원 무기화’ 공동 대응에 따른 에너지 안보 등 기여 ▲2050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 대

응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 ▲양국 문화 교류에 따른 내수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 한일 간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일치했다”며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력·GSOMIA)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해 한미일, 한일 군사정보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5가지 서비스로
튼튼하고 든든하고 탄탄하게

튼튼 든든 탄탄 고객케어



쉽고 빠른 청구

보험금 청구의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해결



특별한 케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자산 관리



빈틈없는 보장

꼭 필요한 보장을
빠짐없이 점검



유용한 보험

보험료 할인부터 플리자 예약까지
편리한 보험 생활의 시작



쏟아진 혜택

건강과 생활까지
챙기는 혜택



1588-3114



‘임종룡號 우리금융’ 첫 은행장에 상업 출신 박화재 재부상

우리금융그룹 24일 주주총회

관계사 원P&S 대표에 내정됐지만 은행장 후보군에 포함 가능성 높아 JY 대출, 계열사 시너지 등 성과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군에 박화재 전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단행된 자회사·관계사 최고경영자(CEO)도 후보군에 포함될 전망이다. 박 전 사장은 최근 우리은행 관계사인 원P&S 대표에 내정됐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거쳐 임종룡 차기 회장이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차기 우리은행장을 선임하기 위한 경영승계프로그램이 곧바로 가동될 예정이다.

경영승계프로그램은 주요 보직자 3~4명을 후보군으로 선정한 후 일정 기간 성과를 분석한 다음 적임자에 대해 자



박화재 전 우리금융 사장

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주위)에서 결정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7일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과정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에서 순이익의 약 92%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 계열사다. 임 내정자의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자리를 오랫동안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 내정자는 차기 은행장의 역량으로 영업력과 조직구조 개혁, 내부통제 강화 등을 우선시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박화재 전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이다.

박 전 사장이 관계사 대표로 내정되면서 우리은행장 후보에서 배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계사 대표 인사의 경우 사장과 부사장, 부행장 등 임원들의 커리어를 마감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금융 내부관계자는 “최근 자회사·관계사 CEO 인사를 단행했지만 우리은행장 후보군에 자회사·관계사 CEO도 포함 가능성이 높다”며 “차기 우리은행장은 상업은행 출신일 것”이라고 말했다.

1961년생인 박 전 사장은 광주상고 졸업 후 고위 임원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43년 동안 여신전문가의 길을

걸었다. 우리금융 내에서는 전형적인 손태승 회장 사람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원덕 행장과 경쟁하면서 손 회장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후문이다.

우리은행 주택금융사업단장과 서초 영업본부장, 업무지원그룹 상무, 여신 지원그룹 상무, 여신지원그룹 집행부행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영업통’이다.

중간관리자 시절을 현장과 영업에서 활약하면서 업적을 쌓았다. 박 전 사장의 대표적인 업적은 삼성가 상속재원 마련 관련 대출건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개인신용 대출로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 절반을 우리은행에서 취급했다.

삼성그룹과 탄탄한 기업금융 네트워크를 다져온 박 전 사장의 주도가 주요했고, 이후 우리은행이 기업여신 명가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초 행장 경쟁에서 떨어져 지주 사장에 올라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우리종금 등 계열사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데 앞장섰다.

최근 임 내정자가 영업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박 전 사장이 유력한 은행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박 전 사장이 상업은행 출신이란 점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원덕 은행장 모두 한일은행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은행 내에선 상업은행 출신인 박화재 전 사장 대항마로 한일은행 출신인 강신국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이 다코흐스로 부상했다는 후문이다.

우리금융 내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인선 작업이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상 너무 촉박해 4월 초에 결정이 날 것”이라며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선임돼 조직안정과 체질개선에 힘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작년 손보사 장사 잘했다… 순이익 27% ↑

보험사 순이익 전년보다 11% 늘어
생보사는 6% ↓… 투자 영업익 악화

지난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성적표가 엇갈렸다.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한 반면, 생보사는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보험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생보사 23개, 손보사 31개) 당기순이익은 9조18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9141억원) 증가했다.

생보사는 3조7055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6.0%(2348억원) 감소했다.

보험영업이익은 금리상승에 따른 보증준비금 감소 등으로 개선된 반면 투자영업이익은 금융자산 평가·처분이익 감소 등으로 악화됐다.

반면 손보사는 5조4746억원으로 26.6%(1조1489억원) 증가했다. 장기보험의 신계약 증가와 손해를 하락 등으로 보험영업이익이 개선됐고, 금리 상승으로 이자수익이 증가해 투자영업이익도 증가한 덕분이다.

〈보험사 주요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A)	2022년(B)	증 감 (C=B-A)	증감률 (C/A)
생명 보험 회사	당기순이익	39,403	37,055	△2,348	△6.0
	보험영업이익	△231,197	△218,711	12,486	손실 감소
	투자영업이익	243,425	229,709	△13,716	△5.6
	영업외이익	37,952	36,008	△1,944	△5.1
손해 보험 회사	당기순이익	43,257	54,746	11,489	26.6
	보험영업이익	△25,708	△14,152	11,556	손실 감소
	투자영업이익	86,258	90,905	4,647	5.4
	영업외이익	△908	△3,177	△2,269	손실 증가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82,660	91,801	9,141	11.1

이 기간 수입보험료 성적은 똑같이 증가했다. 총 수입보험료는 252조8000억원으로 10.8%(24조6000억원) 증가했다. 생보사는 132조6836억원으로 10.1%(12조1379억원), 손보사는 120조1108억원으로 11.5%(12조4213억원) 늘었다.

보험사의 총자산이익률은 0.69%로 전년 동기 대비 0.07%포인트(p)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도 8.22%로 2.27%p 올랐다.

금리상승 영향으로 매도가능증권 평

가 손익이 감소하며 재무상태는 악화됐다. 총자산은 131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6% 감소했다. 자기자본은 88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34.0% 줄어 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변동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신제도 시행 등에 대비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재무건전성 취약 우려 보험사를 중심으로 자본 확충 등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외국은행 국내지점 작년 순이익 40% ↑

파생관련 이익 대폭 증가

지난해 국내에 있는 총 35개 외국계 은행 지점의 당기순이익이 40%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이자이익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외국은행 국내지점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외은지점의 당기순이익은 1조49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4%(429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중 환율 및 금리 변동성이 확

대되면서 파생관련이익이 대폭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파생이익은 환율상승으로 외화부채 평가손실 등이 발생해 외환손익은 손실폭이 확대됐으나 환율·금리상승 리스크 헤지 등을 위한 파생상품거래를 늘리면서 파생손익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개선됐다.

하지만 이자이익이 감소하고 유가증권 및 외환관련 손실은 확대됐다.

이자이익은 1조613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감소했다. 금리상승에 따라

차입금 이자비용(변동금리)이 빠르게 증가했으나 고정금리 대출, 국공채 투자 등으로 이자수익은 상대적으로 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은행들이 전년보다 21.6%(9조9000억원) 늘어난 55조9000억원의 이자이익을 낸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유가증권 손실은 2조7594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확대됐다. 금리상승에 따라 국공채 등 채권매매·평가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정이하여신 증가, 2021년도 총당금 환입에 따른 기저효과로 대손비용은 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구남영 기자

DB손보, TV 新광고 ‘아졌SONG’ 선포 캐롯손보-교통공, 안전운전 인식 강화

보험 브리핑

현대해상 ‘간편한 355건강보험’
광고영상 유튜브 2000만뷰 돌파

DB손해보험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새 광고를 선보인다.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한 소비자 일상

DB손해보험은 새로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TV광고 ‘아졌SONG’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광고인 ‘아졌SONG’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통해 기억하기 쉽도록 제작했다. 또한 DB손해보험 모델 윤아를 시작으로 촬영스텝 및 직장인, 전기자 운전자, 배달라이더 등 다양한 고객이 운전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신규 광고는 케이블TV와 유튜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통해 방영한다. 광고에서 모두보여주지 못한 모델들의 미공개 영상은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 도모

캐롯손해보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전했다.

이번 협약은 안전운전 인식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 목적이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과 함께 서울시 화물차 안전운전 캠페인 등을 운영한 바 있다.

한 달간 진행한 프로젝트에는 화물차 운전자 1700여명이 참여했다. 차량의 주행거리와 위치 파악, 자체 개발한 안전운전 프로그램 활용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아졌SONG’.

/DB손해보험

했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교통 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안전운전 캠페인 활동에 앞장설 것이며, IT기술력 고도화 및 안전운전 프로그램 개발로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병자보험 가입 내용 담아

현대해상은 ‘간편한355건강보험’ 광고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2000만 뷰를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백발의 노인사가 한 건물에 친근함을 느끼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지난 1월 ‘세상 놀라운 보험의 헌답’을 메시지로 제작한 총 세 편의 디지털 광고영상 중 하나다.

여러 특약들로 연쇄 할인을 강조한 ‘자동차보험’ 편과 생활 밀접형 보장 혜택을 현실적으로 표현한 ‘주택화재보험’ 편의 조회수가 상승하면서 세 편의 캠페인 광고 영상 유튜브 조회수 합계는 총 3500백만 뷰로 집계됐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짧은 광고지만 고객을 위하는 현대해상의 진심을 전하고자 노력했다”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지배구조 투명성’ 강조 최태원… SK, 女·전문경영인 확대

〈SK그룹 회장〉

12개 상장사 사외이사 비중 ↑
전문·다양·독립성 강화 위해
추천 후보 12명 중 7명이 여성
전문 경영인 출신도 7명 차지
사내이사는 25%→22%로 ↓

SK그룹 각 상장사들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여성 및 전문경영인 출신 사외이사를 대거 신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다.

더불어 올해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도 한층 커지는 등 SK가 최근 수년간 ‘거버넌스 스토리(Governance Story)’를 적극 추진해온 결과, 이사회 중심 경영 및 지배구조 고도화 관련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SK그룹에 따르면, SK 12개 주요 상장사들은 이사회를 열어 총 12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고 이달말까지 주총에서 이들을 신규 선임할 계획이다. 특히 12명 사외이사 후보 중에 7명이 여성이고, CEO(최고경영자)급 전문경영인 출신도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올해 SK그룹 12개 상장사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SK 디렉터스 서밋(Directors’ Summit) 2022’에서 강연하고 있다. /SK

사회의 여성이사는 총 19명으로, 여성이사 비율이 지난해 대비 7%포인트 높아진 21%가 될 전망이다. 전·현직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도 모두 14명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사외이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15%에서 25%로 10%포인트 높아진다.

그동안 국내 주요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여성이사 비율이 낮고,

특히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SK(₩)는 인수·합병(M&A) 전문가인 박현주 법무법인 세종 선임 외국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고, SK이노베이션은 김주연 전 P&G 한국·일본지역 부회장과 이복희 롬앤드하스전자재료씨엠피코리아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또 SK텔레콤이 오혜연 KAIST AI

(인공지능) 연구원장, SK하이닉스가 김정원 전 한국 씨티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 부행장, SK네트웍스가 채수일 전 보스턴컨설팅그룹 아시아태평양 금융부문 총괄대표, SKC가 채은미 전 페덱스코리아 사장과 김정인 하이퍼라운지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12개 상장사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도 확대된다. 올해 사외이사는 총 56명으로 사외이사 비중이 지난해 60%에서 63%로 높아진다. 반면 사내이사는 22명으로 지난해 25%에서 22%로 축소된다.

SK 관계자는 “이달 말 주총이 마무리되면 SK 주요관계사 이사회는 전문성·다양성·독립성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며 “그만큼 이사회가 기업가치 창출을 실질적으로 선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ESG 경영을 선도해온 SK그룹은 앞서 지난 2021년부터 최태원 SK 회장이 경영화두로 제시한 거버넌스스토리를 추진해왔다.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최 회장은

“지배구조 투명성을 시장에 증명해 장기적인 신뢰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SK 관계사 각 이사회는 2021년부터 CEO 평가와 보상까지 도맡는 등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졌다. 이에 따라 SK 수팩스추구협의회는 ▲사외이사 후보추천 지원 ▲이사회 업무포털 시스템 도입 ▲이사회 평가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디렉터스 서밋(Director’s Summit) 개최 정례화 등 이사회 역량강화 및 운영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SK 관계자는 “SK그룹은 앞으로도 이사회 중심 경영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각 관계사 이사회가 경영진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 기업가치 창출을 주도하는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삼성, 무선통신 반도체로 초연결 시대 준비

‘엑시노스 커넥트 U100’ 공개
대용량 정보, 근거리 빠르게 전송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무선 통신 반도체로 영역을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21일 엑시노스 커넥트 U100을 공개했다.

엑시노스 커넥트는 무선통신 반도체 브랜드다. UWB와 블루투스, 와이파이 기반 반도체를 포괄하며 초연결 사회를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엑시노스 커넥트 첫 제품인 U100은 UWB 기반 반도체다. 대용량 정보를 근거리에서 빠르게 전송하는 기능으로, 스마트키와 스마트홈 등 다양한 분야에



P를 칩 하나에 집적해 소형화된 기기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무선전파 도달시간(ToA)과 3D 도래각 기술을 적용해 복잡한 환경에서도 정밀하게 거리와 위치 측정, 방향 인식을 할 수 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보안 성능도 높였다. 통신 중 외부 해킹을 막아주는 STS 기능과 보안 HW

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엑시노스 커넥트 U100은 RF와 e플래시 메모리, 전력관리 IP를 칩 하나에 집적해 소형화된 기기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무선전파 도달시간(ToA)과 3D 도래각 기술을 적용해 복잡한 환경에서도 정밀하게 거리와 위치 측정, 방향 인식을 할 수 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보안 성능도 높였다. 통신 중 외부 해킹을 막아주는 STS 기능과 보안 HW

암호화 엔진을 탑재했다. 디지털 키값을 저장하고 인증을 공유하는 CCC의 디지털 키 릴리즈 3 표준도 지원한다. UWB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호환성을 검증하는 FiRa 컨소시엄 인증소로 국제 공인 인증도 획득했다.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김준석 부사장은 “‘엑시노스 커넥트 U100’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이의 초연결성, 정확한 방향과 거리, 강화된 보안을 통해 위치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도체”라며 “삼성전자는 그동안 축적한 통신 반도체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근거리 무선통신용 반도체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



LG전자, ‘올레드 TV 짝꿍’ 사운드바 출시

LG전자는 오는 27일 2023년형 올레드 TV에 최적화된 사운드바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0일부터 26일까지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제품은 LG 올레드 에보 C와 함께 설치하도록 최적화했다.

/LG전자

LG전자-바야다홈헬스케어
방문간호 의료기기
사업협력 강화나서

LG전자는 바야다홈헬스케어와 방문간호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바야다는 방문간호와 방문 요양, 맞춤형 건강관리 등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LG전자는 바야다와 LG 메디페인을 활용해 공동 사업 개발과 제품 판매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LG메디페인 구매자에 방문 및 원격간호 서비스와 상담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LG 메디페인은 만성 통증을 완화해주는 의료 기기다. 원인이 없거나 치료 후 병원에서 사용하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과 같은 효과로 식약처 정식 인증도 획득했다.

/김재웅 기자

포스코퓨처엠, NCA 양극재 공장 첫 건설

포항에 연산 3만톤 규모 투자 승인
60kWh급 전기차 30만여대 분량

포스코퓨처엠이 NCA 양극재만을 생산하는 전용 공장을 처음으로 건설한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0일 하이니켈 NCA 양극재의 글로벌 수요증대에 대응하고, 현재 주력 제품인 NCM·NCM A 외에도 고객 및 제품군을 다변화해 시장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포항 NC A 양극재 공장 투자 건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NCA 양극재는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원료로 제조한 양극재로, 배터리 밀도와 출력이 높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재다.

이번 신규 투자 건은 지난 1월 삼성S

DI와 10년간 40조원 규모의 하이니켈 NCA 양극재 공급 계약에 따른 것으로 포스코퓨처엠의 NCA 양극재 전용 공장 건설은 처음이다.

총 투자비는 3920억원이며 포항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연산 3만톤 규모로 건설된다.

이는 60kWh급 전기차 약 30만여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포항 NCA 양극재 공장은 올해 상반기 착공하여 '25년도부터 생산 판매할 예정으로, '23~'24년에는 광양 양극재공장 일부 라인에서 생산되는 NCA 양극재를 공급할 예정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NCA 양극재 전용 공장 건설에 따라 NCA 양극재 수주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기아, 中 전기차 공략 본격 드라이브

준중형 SUV ‘컨셉트 EV6’ 공개
中 전기차 시장 공략 본격드라이브

기아가 중국 전기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21일 기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일 중국 상해 E-스포츠 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아 EV 데이’에서 준중형 전동화 스토츠유틸리티차(SUV) ‘컨셉트 EV5’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중국 전동화 시장 본격 진출을 선언했다.

기아는 2022년 역대 글로벌 최대 판매 등 성과를 소개하며 올해 중국 시장에 전용 전기차를 본격 출시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서 리더로의 강한 재도약 의지를 보였다.

송호성 사장은 “올해는 중국에서 EV6와 EV5를, 내년에는 기아 플래그십 SUV EV인 EV9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가장 빠르고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기아의 성

공은 기아 글로벌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기아는 최첨단의 기술과 다양한 감성적 요소를 결합한 혁신적인 전기차 모델과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바탕으로, 높은 기대치를 가진 중국 고객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EV Tier-1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송호성 사장과 함께 기아 중국법인 총경리 김경현 부사장, 기아 글로벌디자인센터장 카림 하비브 부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한편 기아는 이날 행사에서 준중형 전동화 SUV인 ‘컨셉트 EV5’도 처음으로 공개해 현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컨셉트 EV5는 과감한 미래지향적인 스타일과 경계를 허무는 실내 공간을 통해 혁신적인 모빌리티 라이프의 비전을 제시하는 모델이다.

기아는 올해 중국 시장에서 전용 전기차를 출시해 중국 고객들에게 차원이 다른 이동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AI가 알아서 절약모드로... 1등급보다 최대 70% 추가 절감

비스포크 신제품 공개

SAMSUNG

‘고효율 에너지 절감’ 57개 선풍
소모많은 에어컨 등도 10% 덜 써
비스포크 모든 제품에 ‘와이파이’
맞춤형 서비스 ‘캄테크’ 확대
고수준 AI 기술로 환경 보호도

“친환경에 대한 진심을 느꼈다” 삼성전자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 저감 코스를 만든 파타고니아는 말했다.

삼성전자는 21일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미디어테일을 열고 2023년형 비스포크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이번 신제품은 비스포크 홈에 초연결과 친환경성을 더해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더 가까운 맞춤형 가전과 솔루션으로 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적인 변화는 에너지 효율 개선이다. 초정밀 가공 기술을 활용한 컴프레



삼성전자가 21일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비스포크 라이프(BESPOKE Life)’ 행사를 열고 효율성과 연결성을 높인 비스포크 신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서와 디지털 AI 인버터로 에너지 소비 효율을 1등급보다도 최대 30% 가량 높게 만든 ‘고효율 에너지 절감’ 모델 57개 제품을 새로 내놨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물론, 여름철 전기 소모가 많은 에어컨도 1등급보다 10%나 에너지를 덜 쓴다.

고효율 모델이 아니더라도 세탁기와 건조기는 모든 모델이 1등급을 충족한다. 냉장고와 에어컨까지 평균 75%가

1등급, 업계에서는 1등급 제품 비율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활용하면 ‘AI 절약모드’로 최대 70%까지 추가 절감 가능하다. 냉장고의 경우 AI가 사용 패턴을 분석해 최적화해준다. 그 밖에도 세탁기와 건조기,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 가전 6종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에어컨과 슈드레서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비스포크 신제품은 모두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전 모델에 와이파이를 탑재했다.

이를 통해 알아서 사용자에게 맞춰주는 ‘캄테크’도 확대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측면에서 AI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는 것. 적용 품목도 냉장고와 에어컨 등에서 스틱청소기와 오븐 등을 추가하며 15개로 늘렸다.

비스포크 제트 AI는 280W 성능에 AI 모드로 바닥 상태를 인식해 효율성도 극대화했다. 스틱 청소기 최초 ‘AI+’인증을 획득했다. 로봇 청소기 제트봇 AI에는 ‘우리 아이 마중하기’ 기능을 더해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수준 높은 AI 기술은 환경도 지켜준다. 비스포크 그라데 AI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코스를 탑재해 섬유에서 주로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을 60% 가량 줄여준다. 추후 필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제품 테마 컬러는 세이지 그린이다.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설명. 비스포크 냉장고 4도어는 32형 패밀

리 허브와 베버리지 존을 추가하고, 비스포크 에어드레서와 슈드레서는 용량을 확대하는 등 내부 디자인도 일부 변경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판매량을 전년보다 50% 확대한다는 목표다. 높은 성능에 친환경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용 절감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친환경 소재 사용 등 원가 상승 요인이 일부 있지만,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DX부문장 한종희 부회장은 “올해는 기존 비스포크 홈에 친환경, 고효율, 초연결성을 추가해 비스포크 라이프 개념을 적용하고 개개인의 삶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올해 비스포크는 친환경 실천에 기여하고, AI 기술로 맞춤형 경험을 확대해 ‘비스포크 라이프’를 실현해주는 솔루션으로 진화를 거듭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포스코인터, CCS사업 미래 먹거리로 낙점

미얀마 해상 가스전 개발 경험 등
E&P 분야서 글로벌 역량 발휘
LNG밸류체인 전 단계 연결 유일
탄소중립·온실감축목표 달성 선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CCS(탄소 포집·저장)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사업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달 에너지 부문 산하에 CCS사업화추진반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50년 탄소중립이 국가과제로 설정되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면서 사업 여건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천연가스 개발과 함께 CCS를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게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구상이다.

CCS는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대기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기술이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지하에 저장되는데 적합한 지층 구조를 찾기 위해 인공지진과 탐사 등의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

지하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전시한 CCS사업 모형

원개발의 역방향과 유사하다. 이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상 가스전 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탐사 개발에 성공하고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에서 가스전 탐사권을 확보하는 등 E&P(석유·가스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LNG밸류체인 전 단계를 연결한 국내 유일 기업으로, 천연가스 부존지역 탐사, 가스 운송, 가스전·터미널 운영 등 CCS사업에도 적용 가능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2년 인수한 호주 세넥스 에너지와도 CCS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와 경제성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국영석유기업 페트로나스, 페트로스, 포스코홀딩스 등과 함께 국내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염대수층과 해상 고갈가스전에 저장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그룹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며 2050년까지 대한민국 국가온실감축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삼성준법위, 반도체 사업장 첫 방문·점검

이찬희 위원장 등 위원 전원 참석
준법문화 정착 위해 수시 방문키로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반도체 사업장 준법 문화를 직접 확인했다.

준법위는 21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했다. 이찬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 경영진과 안전환경 및 준법경영 담당 임원들도 동석했다.

준법위가 삼성 관계사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준법문화 정착을 목표로 수시로 방문한다는 방침이다.

준법위는 반도체 사업 관련 ▲안전/환경 ▲내부거래 ▲ESG 등 준법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이찬희 위원장은 “기업의 준법경영은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준법경영을 문화로 받아들이고 근무환경에서 적용하도록 노력할 때 의미가 있으며,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현장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SK C&C, 한국형 챗GPT 초대규모 개발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X 결합
금융 시스템에 접목해 AI B2B 발굴

SK C&C와 네이버클라우드가 손잡고 한국 산업에 맞는 챗GPT 형태의 초대규모 AI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SK C&C는 21일 네이버클라우드와 ‘초대규모(Hyper-Scale) AI 기반 B2B 사업 확장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SK C&C의 디지털 IT S 노하우와 네이버클라우드의 하이퍼클로바X 결합을 통해 국내 산업 맞춤형 AI서비스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하이퍼클로바X는 고객이 자체 보유한 데이터를 하이퍼클로바와 결합해 사용자 니즈에 맞는 응답을 즉각 제공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한 초대규모 AI로 누구나 목적에 최적화된 AI 프로덕트를 만들어 AI 기반의 비즈니스 기회

를 만들 수 있다

양사는먼저 콜센터자동화를 중심으로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캐피탈 등 금융 분야별 맞춤형 초대규모 AI 서비스 모델 발굴에 힘을 모은다.

양사는 금융 산업은 고객상담, 자산 운용, 재무, 투자 등 금융 공통 서비스 외에도 은행의 여신, 수신 등 공공 및 주요 산업에 적용 가능한 업무 대부분을 갖고 있어 국내 AI 서비스에 대표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SK(株)C&C의 데이터 플랫폼인 아큐인사이트 플러스(AccuInsight+), AI 엔진인 아큐닷타에이(Accu.TA)와 같이 이미 검증된 AI 데이터 플랫폼을 금융 시스템에 접목하고 네이버클라우드의 하이퍼클로바X를 조합해 하이브리드형의 초대규모 AI B2B 서비스를 개발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SK디스커버리, 프롭테크 협력체계 구축

부동산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야놀자클라우드와 공동개발

SK디스커버리가 인공지능 기반 글로벌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업 야놀자클라우드와 프롭테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양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발맞춰 다양한 공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중견·중소기업 상생 기반의 프롭테크 시장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데이터 및 개발 역량, 공간 디지털 전환 기술 등을 교류하며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 나갈 계획

이다.

먼저, 양사는 상업·주거용 공간에 대한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동산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공동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프롭테크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보다 손쉽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및 사용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사는 프롭테크 업계의 상생 환경 마련에도 앞장선다. 디지털 기술 지원, 플랫폼 연계, 상생 투자 등으로 중소 서비스 사업자의 성장과 활로 개척을 돕는 액셀러레이팅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

 동아오츠카

스파클링 멀티비타민

오로나민C



비타민B,C 벌꿀 아미노산이
오늘의 생기와 활력을 확실히 올려드립니다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부드럽고 달콤한
치약산 벌꿀



레몬 11개분 (300g 기준)
비타민 C



비타민 B₂, B₆



아미노산 함유



인공색소, 보존료
무첨가



비타민 보호 갈색병

CFD 해외주식, 프리마켓 확대… 증권사, 서학개미 잡는다

〈차액결제거래〉

증권사들이 전문투자자 상품인 CFD(차액결제거래) 서비스의 해외주식 이용시간을 프리마켓(장전)까지 확장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KB증권뿐 아니라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에서 CFD 해외주식 서비스를 프리마켓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도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매수뿐 아니라 매도 포지션(하락 베팅)도 취할 수 있다. 보유한 포지션에 만기가 없어 매도 포지션을 활용해 주가 하락시에도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예를 들어 100만원을 투자해 250만원을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



를 낼 수 있다. 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에 심사를 받아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국내주식을 대상으로한 상품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서는 해외주식 상품까지 CFD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주식은 직접 투자 시 투자

KB·키움·메리츠 등 확대운영 상품 보유없이 차액실현 가능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후 이용

최대 2.5배 레버리지 효과도 "양도세 11%, 해외주식 절반수준 원금 초과 손실발생 주의해야"

자가 양도세 22%를 적용받지만, 절반 수준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를 적용하는 작점이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 거래로 인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 절세 효과가

있다"라며 "그러나 증시 불확실성이 있어 레버리지 투자시에는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달부터 KB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에서 해외주식 CFD 서비스를 장전 거래 서비스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CFD 상품을 프리마켓 거래까지 지원하면서 정규장(오후 11시30분~오전 6시)을 포함해 오후 10시부터 거래를 지원한다. 여기에 오는 6월말까지 미국, 일본, 홍콩 거래 시 비대면 온라인 수수료를 0.05%, 중국 0.10%로 할인 적용해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키움증권도 이달 말까지 이벤트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CFD 거래 시 수수료를 0.07%로 할인해주고 있다. 또한 해외주식 CFD의 프리마켓 거

래를 지원하면서 오후 9시부터 지원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CFD 거래를 하는 투자자라면 가장 빠르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고 정규장을 포함해 총 9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B증권 역시 CFD 신규 및 장기 미거래 비대면 개인 고객 중 다음달말까지 이벤트에 신청하면 해외주식 0.07%의 특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한편, 코로나 이후 동학개미 증가와 함께 개인 전문투자자 수도 늘어나면서 CFD 시장 역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3330건에 불과한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수는 2021년 2만4365건으로 급증했다. 거래금액도 같은 기간 8조3754억원에서 70조702억원으로 늘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SVB 파산에 뉴욕증시 추종 ETF '쭈뼌'

해외주식 Click

예탁결제원, VOO 서학개미 매수 1위 8432만 달러 사들인 QQQM 2위로 상위 10종목 중 5종목이 '추종 ETF'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따라 뉴욕 증시가 급락하자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순매수했다. 이어 미국 은행주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3월 13일~19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위 10종목 중 5종목이 뉴욕 증시를 추종하는 ETF인 것으로 나타났다. SVB 파산 여파에 이어 뉴욕 증시가 하락하자 이를 저점 매수 기회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순매수 1위 종목은 뱅가드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500 ETF(VOO·VANGUARD S&P 500 ETF)로 1억2755만달러가 유입됐다. VOO는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0.03%의 저렴한 운용 수수료를 내세운다.

이어 순매수 2~4위 종목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이름을 올렸다. 인베스코 나스닥100 ETF(QQQ

〈3월 13~19일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달러)

순위	종목명	순매수 금액
1	VANGUARD S&P 500 ETF(VOO)	1억2755만
2	INVESTCO NASDAQ 100 ETF(QQQM)	8432만
3	PROSHARES ULTRAPRO QQQ ETF(TQQQ)	2644만
4	INVESTCO QQQ TRUST SRS 1 ETF(QQQ)	1950만
5	ISHARES CORE S&P 500 ETF(IVV)	1474만
6	SVB 파인애플 그룹	1305만
7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1251만
8	DIREXION DAILY 20+ YEAR TREASURY BULL 3X SHS ETF(TMF)	1181만
9	DIREXION DAILY S&P BIOTECH BULL 3X SHS ETF(LABU)	919만
10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SCHD)	767만

/자료=한국예탁결제원

M·INVESTCO NASDAQ 100 ETF) 8432만달러, 프로샤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PROSHARES ULTRAPRO QQQ ETF) 2644만달러,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QQQ·INVESTCO QQQ TRUST SRS 1 ETF) 1950만달러 등의 순이다.

QQQM과 QQQ는 모두 인베스코가 운용하며,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단, 수수료의 경우 QQQM이 0.15%, QQQ가 0.2%로 차이가 있다. 이어 TQQQ는 나스닥 100지수의 3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다. 수익률 3배를 추종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3배의 손실이 발생하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들의 노력 등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보이자 지역은행 이슈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높아지며 상승했다"며 "FOMC를 앞두고 장 후반 일부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으나 결국 은행 문제 통제 기대감 속 경기 침체 우려 완화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서학개미들은 최근 위기설에 휩싸인 미국 은행주를 집중 순매수했다.

순매수 6위 종목에는 파산한 SVB 파인애플 그룹이 이름을 올렸다. 총 1305만달러가 유입됐다. 다만, SVB의 주가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여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9@

키움증권, 2022 컴플라이언스 대상 수상

KRX 주관 내부통제평가 기초 선정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는 2022년도 컴플라이언스 대상 시상식에서 키움증권이 대상을 수상했다.

21일 한국거래소는 우수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준법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 3개사와 개인 12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선물회사의 자발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하기 위해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회원사의 ▲준법감시체계 ▲거래소 규정 준수 ▲불공정거래 예방 ▲우수사례 등 기타 사안 등 내부통제평가 결과를 기초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위기가 일상화된 시기일수록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준법감시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한국거래소 역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테마주·고빈도 알고리즘 감시 역량을 강화하는 등 본연의 시장 감시에 만전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손 이사장은 "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 및 금융당국·검찰과의 공조체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증시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 회원사와 함께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통제 우수부문 대상은 키움증권이 차지했다. 준법감시 및 거래소 제규정 준수 등 평정 항목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얻어 내부통제 종합 점수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영석 기자

외국인 증시이탈 가속… 이달 1조 순매도

한국거래소, SVB·CS 위기 여파 SK하이닉스·KB금융 등 하락폭 커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및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등에 더해 금리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가 외국인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은 이달 첫 매도세를 보였다. 외국인은 지난 1월 6조3704억원을 사들인데 이어 2월에도 4253억원 순매수했으나 SVB, CS 사태 등으로 인해 이달에는 국내 주식을 연일 매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1조422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날도 외국인은 553억원을 팔아치웠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자 코스

피 지수는 지난주부터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2410.60에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는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는 양상을 보이며 최근 2370~2380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달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들의 주가도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컸다. 이달 외국인 순매도 1위 종목인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이달 들어 6.49% 하락했으며 4·5위인 KB금융과 신한지주는 각각 5.55%, 10.04% 급감했다.

최근 미 금융당국의 발 빠른 대응과 합병으로 SVB, CS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시장에서는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외국인의 투자심리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월 FOMC에서 연준이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사라지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과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증권 '로보굴링' 가입자 1.1만명 돌파

가입자 61%는 40~50대

삼성증권은 지난 2월 말 기준 '로보굴링' 누적 가입자가 1만1000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로보굴링의 '굴링'은 돈을 굴린다는 의미로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투자 기간, 투자 방법, 목표수익률에 맞춰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주는 로보 알고리즘서비스이다.

로보굴링의 가입자는 40대, 50대의 비중이 61%를 차지하는 등 투자에 경험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들보다는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의 가입이 많았다. 또한 로보굴링 이용자의 25.8%가 금융자산만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라고 이들 역시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니즈가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보굴링의 가장 큰 장점은 특정 금융상품에 치우치지 않는 분산투자에 있다. 로보굴링이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는 국내외펀드로 이뤄져 있으며 최초 설계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추가적으로 편입돼 제안될 수 있다. 국내의 주식자산, 채권자산 및 대안 자산으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에는 최소 3가지에서 최대 7가지 상품이 제안돼 충분한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로보굴링은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로 투자자의 과거 투자 패턴 등을 반영해 포트폴리오를 제안한다. 투자자는 본인의 의향을 반영해 특정 상품의 투자 비중을 조정하거나 상품을 추가 또는 배제할 수 있다.

/원관희 기자

서비스 첫날, 기다렸던 만큼 ‘흥행’… 결제 불가 등 오류도

르포

애플페이 국내 상륙

오전에만 17만 명 등록… 인기몰이 이용자 폭주로 결제 안 돼 이슈

아이폰6S 이후 제품 사용 가능

아직 현대카드만 제휴 맺은 상태

애플 “암호화 거쳐 보안 자신 있다”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했다. 애플페이는 사용 첫날인 21일 오전에만 17만 명이 카드를 등록하며 인기몰이에 나섰다. 하지만 애플페이를 사용하려는 사용자가 몰리면서 일부 가맹점에서는 애플페이로 결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히 벌어졌다.

애플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애플페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애플페이는 애플이 제조한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패드, 맥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로 애플 자체 애플리케이션인 ‘지갑’에 현대카드를 등록하면 즉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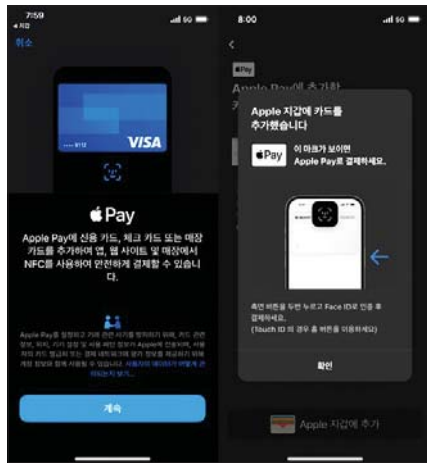


21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된 애플페이로 결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손진영 기자

용 가능하다.

애플페이는 NFC 단말기를 설치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애플 기기로는, iOS 16이 설치된 아이폰6S와 워치OS8이 설치된 애플워치 시리즈3 이후 모든 제품이다. 애플페이 카드 등록은 별도 운영체제 업데이트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애플이 1차적으로 제휴를 맺은 카드는 현대카드다. 현대카드가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상태지만 다른



아이폰에 현대카드를 등록하고 있는 모습. /허정윤 기자

카드사들의 참여가 없기 때문이다. 현대카드 실물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4일 업데이트된 아이폰용 현대카드 앱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애플의 ‘지갑’ 애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앱카드를 불러와 사용 등록이 가능하다.

가맹점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제휴 카드를 등록한 애플 기기를 NFC 결제 단말기에 가까이 대면 된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이날 “더

많은 분이 간편한 결제 방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애플페이 상륙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애플, 간편 결제 보안에 “자신 있다”

던킨 올비 애플페이 인터내셔널 총괄은 애플의 보안 기술을 자신하며 “카드 번호는 애플 서버는 물론 개인 단말기에조차 저장되지 않는다”며 “카드 번호가 아닌 고유의 기기 계정 번호(DAN)를 생성한 후 암호화 과정을 거쳐 사용자의 단말기 내부 ‘시큐어 엘리먼트(Secure Element)’ 칩에 안전하게 저장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칩은 업계 표준 인증을 받은 보안 칩이며, 결제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던킨 올비 총괄은 “아이폰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나의 찾기’를 통해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를 재빠르게 잠금·중단 처리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애플페이 첫날 ‘흥행’…하지만 결제 오류 빈번

이용자가 한 번에 몰리면서 결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카드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배달 앱, 카페, 편의점 등 일부 애플페이 사용 가맹점에서 결제가 불가능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속출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예상보다 더 많은 고객들의 애플페이 사용을 시도하고 있다”며 현재 일부 고객들이 애플페이 결제 시 불편함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용자 몰림 현상으로 파악하고 조치에 들어갔다”고 답했다. 현대카드 측은 ‘서버 오류 문제’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애플페이는 사용할 수 없다. 교통카드 결제 단말기는 NFC 기반이지만 애플페이가 전송하는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따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단말기 교체가 필요하다. 애플페이가 교통카드 역할을 하려면 티머니·캐시비 같은 교통카드 회사가 별도로 애플과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은 “현대카드 가맹점 기준으로 50% 이상에서 쓸 수 있다”며 “사용처 확대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소상공인도 전기·가스요금 분할 납부한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연 10만 ‘E-커머스 소상공인’ 양성 에너지 비용 절감 기술 보급 예정

소상공인도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온라인에 특화한 ‘E-커머스 소상공인’을 연간 10만명씩 양성한다. 준비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매년 500명씩 육성한다. 2025년까지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장을 5단계 보급한다. 2027년까지 백년가게 1750곳, 백년소공인 1150곳을 추가로 발굴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오전 용산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

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여기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 단계별 육성전략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회복·폐업·재기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담겼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최근의 전기·가스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오른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하던 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해 적용한다.

분할납부 시행시기는 전기요금은 7월, 가스요금은 12월부터다.

중기부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

증해 소상공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하고, 온라인으로 진출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E-커머스 소상공인에겐 온라인판매 교육, 상품 개선, 홈쇼핑 O2O플랫폼 진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도 추가로 구축한다.

상생형 스마트상점은 정부가 50%를 지원하는 것 외에 선도기업이 30%, 그리고 소상공인은 20% 자부담하는 구조다.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에도 올해부터 매년 ‘강한 소상공인’ 150팀, ‘유망 프랜차이즈’ 25곳도 육성한다.

/김승호 기자 bada@

노동계, 이정식 ‘직권 남용’ 고발…당분간 노정 ‘강대강’ 대처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부, 회계 자료 제출 요구 노조 “자주성 침해 행위 중단”

노동계가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사진)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용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자 노동계는 고발로 맞대응했다. 앞으로 노동계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제기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노정 간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직권을 남용한 명백한 위법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부는 양대 노총 등 점검 대상 노조 319곳에 회계장부 비치 여부 관련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노조 319곳 중 73.1%(233곳)만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정부는 노조법 위반으로 해당 노조 대상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양대노총은 “제3자인 고용부가 비치

또는 보관 자료의 등사물(인쇄물)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노조 내부 분쟁 등의 조사 필요성이 확인됐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양대노총은 “고용부가 노조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탄압했던 행정기관 조사권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행위”라며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반노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주문에서 배송까지 원스톱…홍보도 수월

한진 앱 ‘디지털 이지오더’로 편리

㈜한진이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지원 플랫폼 앱(App)인 ‘디지털 이지오더’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고 있다.

21일 한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출시한 디지털 이지오더는 상품 등록부터 주문, 결제, 배송까지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디지털 앱 플랫폼으로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업무 편의성

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입비, 주문 수수료, 광고비를 없애 판매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객관리 외에도 홍보, 마케팅 등 더 수월하게 매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판매자가 단골 고객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디지털 명함을 보낼 수 있다. 또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가게 전용 QR코드를 스캔해 매장 상품 정보를 확인 후 상품을 구매해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환경부로 총 37개 환경성적표지 인증 보유

유진기업 친환경 경영 강화 나서

유진기업이 친환경 경영 강화에 나섰다. 21일 유진기업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13개 규격의 레미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다.

환경성적표지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산

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1단계 탄소발자국과 2단계 저탄소제품으로 나눠 운영하며 3년 단위로 갱신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인증으로 유진기업은 37개 규격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을 보유하게 됐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총 30개 제품 개발부터 무료 방송까지

공영홈쇼핑 지역 특산물 지원 사업

공영홈쇼핑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15개 경제진흥원과 함께 지역별 상품 육성을 위한 ‘전국 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참여 대상은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

21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전국 지

역 특화제품 판로지원’은 지역별 대표 육성산업, 산업단지 사업화 제품, 지역 고유 특산물 등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총 30개 제품을 선정해 1대 1 상품 코칭 등 상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TV 홈쇼핑 무료 판매 방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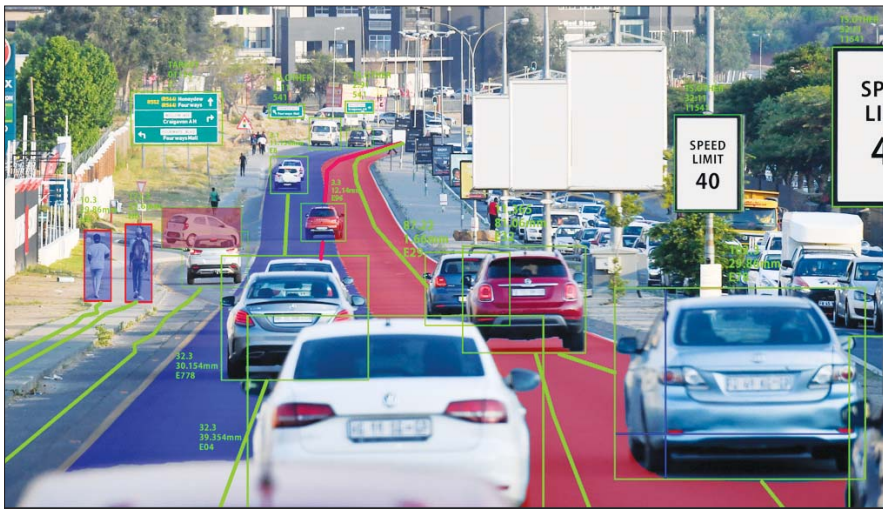
韓·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에 1000만弗 공동 투자

산업부, ‘이노베이션 데이’ 개최
자율주행·전기차 등 연구개발 공고
기금출연금 매년 각각 400만달러
지원 범위에 인력교류 등 추가도

정부가 이스라엘과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에 1000만달러를 공동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스라엘 혁신청과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양국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이스라엘 이노베이션 데이’를 공동 개최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기술 협력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1998년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협정이 전면 개편돼 지난해 12월 다시 발효됐다. 새로운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기금출연금을 매년 각각 400만달러로 기존보



/유토이미지

다 두 배 늘리고, 지원 범위에 공동 연구 개발 외 인력교류 등을 추가했다.

그간 양국은 약 7700만달러를 공동 투자해 총 196건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한국의 큐어세라퓨틱스가 이스라엘 올제네시스사의 인슐린

세포 원천기술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기술을 사업화하고, 올제네시스모기업으로부터 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성과가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꼽힌다.

양국은 올해 글로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기술협력을 본격화한다. 스마트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전기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운송 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글로벌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은 지난해 579억달러에서 2030년 2503억달러로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이날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현황과 연구개발 협력 분야를 논의하고,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 기업 간 1대 1 기술 상담회 등을 통해 기술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국제공동 연구개발(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3년간 1000만달러를 투자, 이스라엘이 강점을 가진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 등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카 핵심 서비스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은 세계 5위 자동차 제조국, 세계 1위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국인 모빌리티강국이며, 이스라엘은 미래자동차 분야 500개 이상 연구개발센터와 스타트업뿐 아니라 97개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양국이 상호보완적 강점을 활용해 협력한다면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한-이스라엘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 공고 기한은 5월 17일까지며, 지원 분야는 자율주행, 전기차, 조선, 항공, 철도다. 양국 기업과 학·연의 ‘2+2’ 이상으로 구성된 산학연 컨소시엄을 선정해 과제당 최대 3년간 각각 최대 정부 출연금 500만달러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국생활건강 ‘가짜후기’ 1.4억 과징금

공정위, 2700여개 허위 광고 시정명령
빈 박스 받고 후기 올리면 건당 지급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으로 온라인 쇼핑물에 2700여개의 허위 구매후기를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광고 대행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이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물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이란 온라인몰의 후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해 허위

구매후기를 등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사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물에 등록한 후,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04년4월~2021년 6월까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올렸다.

두 회사는 한국생활건강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 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한국생활건강은 자신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할 경우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감성닷컴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한 것으로 나

타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 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 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와 개인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건당 1000원 내지 2000원을 받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무역적자 개선위해 민관역량 총동원

산업부,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최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글로벌 금융시장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수출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민관역량을 총동원한 수출드라이브를 지속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SVB 파산 사태와 유럽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 유동성 위기에 따른 업종별 수출 영향을 점검했다. 점검회의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 자동차, 석유,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와 수요둔화 흐름 속에서 3월 20일 기준 수출이 전년대비 17.4% 감소하면서 63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고 언급하고 “글로벌 경기 상황과 반도체 가격 하락세 지속 등 영향으로 수출 여건은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기업·기관 간 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럽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의 유동성 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고금리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수출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원기관이 함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소진공

소상공인 노하우 ‘우수사례집’ 발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지원사업 성공 사례를 담은 ‘소상공인 본부 통합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통합 우수사례집은 ▲창업편 ▲성장편 ▲재기편 ▲소공인편 등 소상공인 지원 분야별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창업지원의 강한 소상공인 사업으로 한국 전통한과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앞장서는 선미한과 ▲성장지원의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으로 대한민국 제 1호 백년기업특화거지로 지정되는데 크게 기여한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 ▲재기지원의 희망리턴패키지로 폐업 위기를 극복하고 K-재난 의료기기 대표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골든아워 등 총 49개 사의 성공스토리가 자세하게 담겨있다.

/김승호 기자 bada@

中企 150곳 청년 ‘공정채용’ 무료 컨설팅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
현 채용 제도 진단 보완점 도출 방식

중소기업들이 청년 등 구직자를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컨설팅 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중소기업 150곳을 선정해 공정채용 제도 설계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120~150일 채용 관련 맞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전문 컨설팅 기관이 기업의 채용 광고와 인사 규정을 토대로 현 채용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점과 보완점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컨설팅은 채용 일정 안내나 응시원서 접수 등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 법령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는지, 원

하는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지, 채용된 직원의 조기 이탈이 있는지 등으로 이뤄진다. 이후 청년과 기업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채용 제도를 설계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서류·면접 등 단계별 결과를 신속히 안내하고 면접에서 불합격한 경우 그 사유를 알려준다. 또 기업 대표와 채용 담당자, 면접관 등에게 면접 교육도 한다. 키나 몸무게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평가 모델을 구축, 구직자들이 필요한 직무 역량을 미리 확인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사 후 부적응으로 인한 조기 이직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민간참여 확대… 기술자문 플랫폼 구축

기보, 외부전문가 등록 적극 참여 유도

기술보증기금이 다양한 분야의 민간 기술자문위원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기술평가 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자문 통합관리 시스템’을 열었다.

21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해 약 1000명의 외부 기술자문위원을 등록해 2000건 이상의 전문 기술평가에 기술자문으로 참여토록 한 바 있다.

기보는 이에 더해 외부 기술자문위원 참여시스템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해 자격을 갖춘 누구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축된 시스템은 자문위원이 직접 외부자문 등록, 이력 관리, 계약 체결, 의견서 제출 등을 수행할 수 있어 자문위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기보는 자문위원 선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 추천·선정시스템 도입 ▲자문계약 전자체결 ▲자문의견서 전산화 등 모든 제도를 온라인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사업자 모집!!

27년 전통의 대한홍삼(주)에서
건강사업 성공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 다양하고 획기적인 제품(기능·이윤)군
- 온라인 판매 마케팅 솔루션 지원
 - 웹카탈로그 제공
 -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맞춤형 창업 및 판매노하우 교육
- 홍보 지원 (TV광고 등)



◎ 취급상품

-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의류 / 화장품

◎ 온라인 [웹카탈로그] 제공

- 매장과 소비자 간 견적 딜 시스템
- 영업사원 관리 및 고객 홍보 시스템

◎ 온라인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11만 여 개의 인기 & 특가상품

창업안내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창업 (매장, 영업장, 센터)

◎ 무점포·무자본 창업

◎ 웹카탈로그·복지몰 창업

창업비용

업계 최저 창업비
+ 최대 혜택

상담신청



홈페이지



www.koreahongsam.co.kr

30년 역사 햏터그룹

BH 대한홍삼[주]  브레인TV  (주)햏터라이프 (주)한삼장홍삼

문의 : 02.2163.0411

대한홍삼(주) 최원석
010.2286.5687

‘AI서비스로봇 산업’ 글로벌 중심지 ‘경북’이 만든다

인탑스, KT 등 8자간 업무협약
로봇 활용 지역상권 활성화 촉진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농업·물류·안전 등 로봇3대분야 집중

경북도가 인공지능 서비스로봇 중심지로 발돋움 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 걸음을 시작했다.

경북도는 21일 도청에서 구미시, 베어로보틱스, 인탑스, KT,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8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북도와 구미시, 기업, 연구기관 등이 로봇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해 경북을 인공지능 서비스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고자 추진됐다.

지난달 28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



경북도는 21일 도청 사립실에서 구미시, 베어로보틱스, 인탑스, KT,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8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셀로나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KT와 베어로보틱스를 만나 AI서비스로봇 제조 글로벌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날 협약은 ▲AI서비스로봇 산업육성을 통한 스마트 민생경제 대전환 공동대응 ▲AI서비스로봇 부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 협력 ▲AI서비스로봇 연구개발 및 실무형 전문인력양성 협력 ▲AI서비스로봇

설계·생산·운영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AI서비스로봇 클러스터 조성으로 도내에서 제조한 로봇 및 부품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서비스로봇을 활용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고,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조사와 부품 기업 간 협업

을 강화하고 부족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AI서비스로봇 글로벌 제조1등 생산기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선도 로봇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내에 구축된 로봇실증센터(안전, 수중, 농업, 교육)와 경북도 과학기술 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된 하정우 베어로보틱스 대표와 함께 연구기관, 학계,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북의 특화분야인 농업(팜봇), 물류(AMR), 안전(코봇) 등 로봇3대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서비스로봇은 고령화, 인력난으로 인해 가정,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인간을 대신해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현실에 꼭 필요한 로봇”이라며 “오늘 업무협약은 기업과 연구소, 기관이 협력해 경북도가 글로벌 로봇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경상남도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남해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실적에 대해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지방세 조사 등 8개 분야 22개 항목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졌다.

남해군은 지난해 대상 수상으로 상사업비 3억원을 받아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을 한 건 남해군 지방세정에서 처음 있는 쾌거다. /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

‘부산엑스포’ 서포터즈 발대식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는 부·울·경 시민 600명으로 구성된 ‘2030부산세계박람회 실버 서포터즈’ 발대식이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에 위촉되는 실버 서포터즈 600명은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시도 시민으로 구성됐으며 600명이라는 인원은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연도인 ‘2030’이라는 숫자에서 20과 30을 곱한 숫자다.

실버 서포터즈는 오는 12월 말까지 활동하며 BIE 현지 실사단의 홍보 지원, 시민 캠페인, 부산 바닷가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시의 주요 행사를 지원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인구유출’ 대응 나서 4.9조 들여 살고싶은도시 조성

4개 전략, 100개 세부과제 등 구성
일자리창출·주거지원 등 인프라 구축

2021년 말 수립된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이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사업이 반영되어 보완·수정됐다.

울산시는 21일 시청에서 ‘인구정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2년~2026년) 수정(안)’ 및 ‘2023년 울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2~2026년) 수정(안)은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 울산’을 이상(비전)으로 ▲미래성장도시 기반 강화 ▲정주여건 개선 ▲생애전반 맞춤형 지원강화 ▲인구변화 선제대응 등 4개 전략, 14개 전략과제, 10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수정 사항은 세부 추진과제가

당초 79개였으나 100개로 조정(신규 30개, 변경 4개, 제외 8개, 통합 1개)됐다.

사업비는 5년간 당초 3조 9041억원에서 9218억원이 증가한 총 4조 8259억 원이 투입된다. 2023년 울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은 총 99개 세부추진과제(1개 과제 완료)에 사업비 7853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과제를 보면, 미래 신산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 및 교통기반(인프라) 개선을 통한 스마트거주 환경 강화, 문화·관광자원 기반(인프라) 구축을 통해 골집문화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또 함께 하는 출산환경 조성,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사회 구축, 인구대책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인구변화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찾아가고 싶은 봄섬- 여수 하화도

/전남도

전남, 하화도·관매도·반월박지도 ‘섬캉스’

행안부·한국섬진흥원, 꽃 주제 선정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공동으로 ‘꽃(색깔)’을 주제로 선정한 ‘찾아가고 싶은 봄섬’ 5개 섬 중 여수 하화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등 전남 3개 섬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수 하화도는 파도의 침식 작용과 풍화작용으로 해안에 생긴 낭떠러지인 해식어로 이뤄진 천혜의 절벽 자연경관과 진달래, 유채꽃 야생화가 섬 전체에 만발해 꽃섬으로 불린다.

진도 관매도는 지난해 여름 캠핑섬 선정에 이어 올해 봄의 전령, 유채꽃 섬으로 선정됐다.

신안 반월박지도는 파플섬으로 유명하다. 반달 모양의 반월도와 박 모양의 박지도가 보랏빛 다리로 연결됐다. 박지도에는 봄에는 라벤더, 가을에는 아스타 국화, 반월도에는 라일락, 수국 등이 만개해 보랏빛 꽃이 절경을 이룬다.

‘찾아가고 싶은 섬’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전국 33개 섬을 선정하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주엑스포대공원 경북공역서 홍보 현판식

경주엑스포공원(대표이사 류희림·사진)은 서울 경북공역에서 김장실 한국관광공사사장,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 내에 설치된 신라기마인물형석상에 경주관광홍보판을 부착하는 현판식을 오는 24일 갖는다. 이 자리에는 기마인물형토기를 주제로 한 한국최초 3D영화 ‘토우대장차차’의 작가 류철균경북연구원장도 참석을 한다.

한국 관광 1번지 경북공의 관문 역할을 하는 3호선 경북공역은 건설 당시부터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예술공간’이자 경북공을 축소해 놓은 듯한 ‘지하 박물관’으로 조성됐다.



경북공역은벽부터 화강암으로 마감돼 조선의 정궁이었던 경복궁의 이미지와 오버랩된다. 승강장에는 크게 확대된 신라의 기마인물형 토기 모형석상이 들어서 있다.

기마인물형토기(국보제91호)모형석상은 주인공과 시종상 한쌍이다. 말을 탄 인물을 묘사한 이 한쌍의 석상은 1924년 경주금령총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토기를 실물크기로 재현한 것이다.

/경주(경북)=김상복 기자

전남, 농어촌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

개인 통신비 60억 절감 효과

전남도가 농어촌지역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확대한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해까지 240억 원을 들여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 결과 2022년 한해 60억원의 개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가 7대3 부담 비율로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했다.

지난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료와

이파이 3979회선에 대한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 건수가 전년(2억 1000만건)보다 48% 증가한 3억 1000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데이터양으로 환산하면 전년(1726테라바이트)보다 41%늘어난 2463테라바이트로, 60억원이 넘는 개인 통신비를 아낀 셈이다. 이는 전년(15억원)의 약 4배 규모다.

전남도는 올해도 사업비 약 10억 원을 들여 1669회선의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한다.

LTE 기반의 버스 와이파이 500대는 5G 기반으로 전면 전환해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순천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20일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순천시는 수소경제 육성 계획 수립을 통해 ‘순천형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 미래 순천의 100년 먹거리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전략 수립, 수소 산업 특화 단지 조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수소도시 조성,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등이다. 에너지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재)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플라스틱 줄이기 아이디어 ‘속속’… 기후위기 극복 앞장

플라스틱 줄이는 편의점

편의점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에 팔을 걷어붙였다.

편의점은 간단한 음식료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만큼, 일상 속 폐기물 감축을 위한 첨단에 있다.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면서 편의점 업계는 어느새 전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노력의 결과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페플라스틱 분해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테라블록과 함께 물류센터 내 페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전개한다.

테라블록은 고분자로 중합되어 있는 PET를 중합 이전 원료인 TPA(테레프탈산)와 EG(에틸렌글리콜)로 다시 되돌리는 ‘해중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중합 기술을 활용하면 유색이나 혼합물이 있는 PET도 재활용할 수 있어 페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온 상태에서 반응시간이 짧고 금속 촉매를 사용하지 않아 기존 해중합 기술 보다 온실가스를 90%



서울 강남구 GS25 강남점에서 직원이 빨대가 필요 없는 얼음컵을 살피보는 모습. 일회용 플라스틱 얼음컵은 각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 1,2위를 기록하는 대표 상품 중 하나다. /뉴시스

세븐일레븐 테라블록과 맞손
해중합 기술로 재활용율 확대
연간 80톤 신규 플라스틱 감소

CU ‘마시는 뚜껑 컵얼음’ 개발
전국에 도입… 연간 200톤 절감

GS25 한국환경공단과 협약
점포 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 인계

감소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해중합 처리된 재생원료인 TPA는 99% 순도를 자랑하며 재활용률도 97%에 이른다.

세븐일레븐은 인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페플라스틱부터 테라블록을 통해 재활용화하고 점차 전체 물류센터로 넓혀갈 방침이다. 테라블록이 세븐일레븐의 전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페플라스틱을 수거하여 재활용화할 경우 연간 약 80톤의 신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세븐일레븐측은 내다봤다.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플라스틱 얼음컵 레귤러 사이즈를 자체 개발한 친환경 종이얼음컵으로 전면 교체하면서 사업 전방위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CU도 이달 ‘마시는 뚜껑 컵얼음’을 전국 점포로 확대했다. 지난해 수도권 점포를 중심으로 시범 도입한 데 이은 결정이다.

컵얼음은 한해 2억개 가까이 판매되며 최대 판매 상품 1, 2위를 다툰다. 그러나 내용물인 얼음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빨대를 없애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CU는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시제품 개발과 수백번에 걸친 누수 테스트를 진행했고, 빨대는 필요 없으면서 내용물을 보존할 수 있는 용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뚜껑 가장자리를 주름 모양으로 가공하는 리밍 공정을 강화해 음료를 기울였을 때 컵과 뚜껑의 이음새에서 음료가 새는 것을 방지했으며 입과 직접 닿는 부분인 ‘캡’ 부분이 깨지지 않도록

경도와 복원력을 강화하며 상품의 안정성도 높였다.

CU는 이번 빨대 없는 컵얼음 도입을 통해 1g 무게의 플라스틱 빨대 이용을 줄여 연간 200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25는 지난달 자원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E-순환거버넌스,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폐기 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체계 확립 ▲유해물질의 안전한 처리 및 친환경적 재활용 ▲자원 선순환 구조 시너지 창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순환 거버넌스는 환경 부로부터 인가받아 전기·전자제품을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는 비영리 공익 법인이다.

GS25는 앞으로 1만 6000여 점포에서 오래 사용해 폐기해야 하는 전자제품(쇼케이스, 온장고, 전자레인지 등)이 나오면 이를 E-순환거버넌스로 인계한다. 수거한 폐전자제품은 재활용 처리업체로 인계돼 친환경적으로 폐기되거나 재활용 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작년 ‘테라’ 판매량 역대급… 10억병 돌파

하이트진로, 전년대비 11% 증가
음식점·술집 판매량 33% 급상승

출시 4주년을 맞이한 ‘청정라거-테라’가 지난해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맥주 시장에서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테라’가 지난해 연간 판매량 10억병을 돌파,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하며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테라’는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을 겪으면서도 출시 이후 연평균 23%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출시 해 2022년 판매량이 약 86% 증가하며 급성장했다.

지난해 하반기 엔데믹을 맞이하여 하이트진로는 ‘테라 리-봄업’ 활동을 통해 소비자 접점에서 다양한 프로모션과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해 일반 음식점, 술집 등 유흥 채널 전체 판매는 전년대비 약 33% 증가하며 최대 판매를 견인했다. 유흥 시장의 판매량이 전 부문 성장한 가운데, 특히 펍과 클럽 등에서 주로 마시는 소병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85% 증가했으며 치킨·호프집, 각종 행사 등에서 즐겨 마시는 생맥주 역시 약 54%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대형마트 등의 가정 채널은 출시 후 연평균 성장률 26%로 홈솔루션 트렌드와 함

께 꾸준한 성장을 보였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새로운 용량(400ml/463ml)의 캔맥주 제품과 1.9리터 대용량 페트를 출시해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확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판을 마련했다.

하이트진로는 향후 이종업계 간 브랜드 컬래버레이션과 한정판 제품, 그리고 스푼너, 쏘맥타워와 같은 혁신적인 굿즈 상품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테라의 원재료(전분)가 ‘NON-GMO PROJECT(유전자 변형 없는 식품)’ 인증을 획득하며 제품의 핵심 콘셉트인 ‘청정 본질’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갤러리아百, 디올 봄·여름 컬렉션 단독팝업

압구정 명품관서 내달 20일까지 운영
팬츠·코트·가방·액세서리 등 선보여

갤러리아백화점이 다음달 20일까지 압구정 명품관에서 명품 브랜드 디올의 봄·여름 2023 컬렉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디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가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기반으로 꾸몄다.

디올은 올해 2023 S/S 컬렉션에서 겨울 정원의 몽환적인 분위기와 식물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드레스 ▲팬츠 ▲코트 ▲가방 및 액세서리 등을 선보였다.

이번 갤러리아팝업스토어에서는 ▲레이디 디라이트 미니 ▲디올 북토티



갤러리아 명품관에 세워진 명품 브랜드 디올의 2023 S/S 컬렉션 팝업스토어. /갤러리아

라지 ▲새들 미디엄 등을 갤러리아 단독 상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갤러리아 선공개 상품으로 매크로카나주 채킷와 유니언 드레스, 유니언 쇼츠 등도 전시한다.

/김서현 기자

맥도날드 ‘워킹홀리데이 in 제주’ 직원 선발

총 12명… 항공원·숙박비 등 지원

한국맥도날드는 ‘맥도날드 워킹홀리데이 in 제주’ 프로그램에 참여할 직원들을 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맥도날드 워킹홀리데이는 새로운 지역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맥도날드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제주도를 시작으로 국내외 다양한 지역에서도 진행될 계획이며, 매장 직원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현장 전문가로서의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맥도날드 워킹홀리데이 in 제주’ 프로그램의 선발 인원은 총 12명으로, 오는 7월부터 약 5주간 제주도의 맥



도날드매장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게 된다. 맥도날드는 선발 인원들에게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 왕복 항공권과 근무지 인근에 숙박 및 활동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배낭, 기념 티셔츠, 모자, 짐벌 등으로 구성된 제주 워킹홀리데이 기념 선물 세트도 전달할 예정이다.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신원선 기자

인터파크, 베이징·계림 등 中 여행패키지 판매 재개

21일 인터파크가 베이징, 상하이, 장가계, 계림, 황산, 청도, 텐진 등 중국 인기 여행지의 패키지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

3년 여만에 중국이 외국인 관광객 자 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인터파크 또한 중국 여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인터파크는 그동안 중국팀 전담 인력을 확충해 상품 출시를 준비해 왔다. 국적 항공사 좌석, VIP 리무진 버스, 최상급 호텔, 전문 가이드 동반, 미식, 자유일정 등과 결합해 실속 있게 라인업했다.

특히 고객이 중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현지 점검에 만전을 기했다.

/김서현 기자

CJ제일제당, 냉동 ‘비비고 본갈비탕’ 출시

CJ더마켓서 내달 9일까지 기획전

CJ제일제당 비비고 국물요리가 전문점 수준의 맛과 품질을 갖춘 냉동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다.

CJ제일제당은 신제품 ‘비비고 본갈비탕’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주로 구이용으로 사용되는 본갈비 부위를 엄선해 두툼한 살코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본갈비는 13대의 갈빗대 중 1번에서 5번까지의 갈비를 칭하는데, 육즙과 육향이 풍부하고 식감이 부드럽다. 갈비는 LA갈비 형태로 썰어내 뼈를 발라먹기 편하도록 했다.

비비고만의 ‘육수추출’ 기술을 토대로 국물에도 정성을 쏟았다. 능이, 표고버섯, 나박무, 양파, 마늘, 대파 등 6가지 야채와 버섯을 직접 우려냈고, 갈비

의 지방을 일일이 제거해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살렸다. 쫄쫄 끓인 국물을 그대로 냉동해 맛집에서 갓 끓여낸 신선한 풍미를 구현했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공식몰 CJ더마켓에서 다음달 9일까지 기획전을 진행한다. 3월 27일까지 사전예약 기간 동안 단품은 15%, 3개 묶음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비비고 본갈비탕’ 포함 2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추첨을 통해 80만원 상당의 메디큐브 에이지알 물광테라피 2종을 총 3명에게 증정한다. 제품 리뷰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국내 국물요리 시장은 지난해 약 5900억원 규모(상온·냉장·냉동을 모두 합친 수치, CJ제일제당 추산)로 추정된다.

/신원선 기자

“값 비싼 국민고기 ‘한우’, 돼지고기 가격으로 즐기세요”

인터뷰

한우 스마트 정육식당 김재남 대표

1등급한우 등심200g2만원도 안해
1인분 기준 150g→200g으로 조정
유통구조 단순화 소비자 직접 골라
소비기한 지난 고기 100% 폐기처분
스마트 숙성고 신선도 유지·맛 ↑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외식문화가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한우 소비는 더욱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 ‘삼겹살과 가격으로 승부하겠다’는 한우 식당이 있다.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한우 스마트 정육식당’은 1등급 한우 등심 200g을 2만원이 되지 않는 금액에 판매해 축산 농가의 고충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다.

김재남 한우 스마트 정육식당 대표는 150g 내외로 항상 부족한 양이었던 한우 1인분의 양을 200g으로 조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해 한우 소비 촉진에 힘쓰고 있다. 메트로신문이 그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기존 정육 식당과의 차별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한우를 돼지고기와 비슷한 가격에 먹을 수 있어 합리적인 외식을 즐길 수 있고,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우 스마트 식당의 차



IoT 자동판매기(스마트 숙성고) 앞 김재남 대표.

별점은 ‘정형사(육부장)가 없다’는 점이다. 정육 식당의 경우 고기를 손질하는 정형사가 가장 중요한 고급 기술자인데, 우리 식당에는 정형사가 상주하지 않아 매장 운영의 편의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인건비도 절감했다. 또 미리 손질된 고기를 진공 포장해 보관하기 때문에 재고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고객의 밥상에 올라가기까지 판매되는 한우의 유통 경로에 대해 알려달라

“보통은 ‘한우농가→도축장→육가공공장→대도매상→중간도매상(→소도매상)→정육점 또는 정육식당→소비자’의 유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식당은 ‘한우농가→도축장→육가공공장→한우 스마트 정육식당→소비자’로 유통 경로를 거친다.

한우는 정형사의 칼질에 따라 수십가지의 부위로 나뉘지고 그에 따라 값어치도 달라진다. 이러한 고급기술을 가진 정형사가 도축장/육가공공장에도

있고 유통업체인 도매상에도 있고, 일반 소비자를 만나는 정육점에도 있고, 정육식당에도 정육주방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 마리의 한우가 소비자의 입안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3~4명의 정형사를 거치는 구조다. 그러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저는 정형사의 손질을 최소화하자는 단순 논리로 유통구조를 단순화했고, 육가공공장에서 단 한 번만 고기를 세절하도록 했다. 그리고 식당으로 온 고기는 IoT 자동판매기(스마트 숙성고)에 보관된다. 소비자들은 그저 직접 고기를 보고 선택하면 된다.”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관 시스템은

“IoT 자동판매기 온도는 한우를 맛있게 숙성시키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1도에서 1도 사이로 설정되어 있다. 이 자판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제작된 자판기로 온도관리 및 축산물 이력관리까지 하고 있다.

고기는 육가공공장에서 세절한 뒤 곧바로 진공포장하고 있다. 이로써 냉장 상태에서 최대 60일까지의 소비기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고기는 100% 폐기처분한다. 다만 소비 기한이 지나기 전(보통 15일 이내)에 판매가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측 가능한 판매량을 신중하게 판단해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당에서 판매되는 한우의 생산지는

“경북 영주와 충북 진천에 있는 육가공공장에서 세절, 진공포장된 고기들이다. 한우의 생산지는 영주한우와 진천한우를 우선적으로 도축, 육가공한 것을 사용하지만, 수급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의 한우를 사용하기도 한다.

육가공공장을 영주와 진천에 있는 공장으로 정하게 된 이유는 한우 스마트 정육식당의 운영방식을 이해해주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곳이기 때문이다. 기존 육가공공장들은 큰 분류로 한우를 정형해 거래처에 공급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처들이 비용 손실을 감내하면서 모든 부위를 세절해 소포장으로 출고시키고 있다.”

-한우 스마트정육식당 운영 방향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달라

“저는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많은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유통업자에 지나지 않는다. 두가지 점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싶은데, 첫번째는 1인분의 기준을 200g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 식당에서만은 충족할 만큼의 양을 드리고 싶다. ‘국민 고기=삼겹살’이라는 공식을 깨는 것이다. ‘한우는 비싸서 먹기에 부담스럽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

/원선진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당뇨신약 ‘엔블로’ 아세안 3개국 허가신청

대웅제약, 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
2030년까지 50개국 진출 육성 계획

대웅제약의 국산 36호 당뇨신약 ‘엔블로’가 남미에 이어 동남아시아로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확장을 시작했다.

대웅제약은 최근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3개국에 SGLT2 저해제 계열 당뇨병 신약 엔블로 품목허가신청서(NDA)를 각각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엔블로 NDA 제출을 시작으로 아세안(ASEAN) 국가 진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추가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해 2025년까지 15개국, 2030년까지 50개국 진출을 통해서 국산 최고 당뇨신약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올해 상반기 엔블로 국내 출시 후, 해외 주요국가 발매 시점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쟁약물 대비 해당국가 내 특허 존속기한을 최대한 오래 확보함으로써, 각 국가에서 오리지널 신약 제품으로서의 지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아세안 국가 품목허가 신청을 시발점으로 국산 36호 신약 엔블로가 향후 글로벌 시장 전역으로 진출이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이화의료원, ‘여성건강’ 펌테크 개발에 본격화

국내 최초로 펌테크 연구소를 개설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펌테크 개발에 본격 나섰다. 펌테크(Femtech)란 여성(Femal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여성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소프트웨어, 진단, 제품, 서비스 등을 뜻한다.

이화의료원은 지난달 28일 지비비주식회사, 이미타사이언스주식회사와 3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이화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비비비는 서울대학교 정가진 교수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뿌리는 여성 질유산균 ‘팻톡’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강스탬바이오텍 ‘리프팅 앰플’ 5만명 판매 돌파

주름·기미·리프팅 올인원 케어

강스탬바이오텍은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지디일레븐(GD11)의 ‘메가셀 리프팅 앰플’이 출시 3개월 만에 5만명 이상 판매됐다고 21일 밝혔다.

메가셀 리프팅 앰플은 강스탬바이오텍의 줄기세포 연구 노하우와 배양액 원천기술로 탄생한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을 담아 주름, 기미, 리프팅, 피부밀도를 한번에 케어할 수 있는 일명 ‘꿈의 앰플’이다. 제품의 핵심성분인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은 290여편의 SCI급 논문과 90여편의 특허등록을 통해 피부 재생 및 노화 케어에 특화된 화장품 원료로 그 효능을 입증 받았다.

홈쇼핑 방송을 통해 고기능성 안티

에이징 앰플로 알려지며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된 여성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본 제품은 20가지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한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능과 제품 기술력이 소개된 바 있다.

특히, 인체 적용 시험 항목 중 피부 속탄력, 피부 맑기(투명도), 피부 보습력은 단 한번 사용만으로 15회 이상 바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그 밖에 깊게 패인 눈가, 팔자, 미간 주름 및 기미개선 효과 또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메가셀 리프팅 앰플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50분 ‘GS홈쇼핑 뷰티시그널’ 방송에서 만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동아제약

색소침착, 멜라토닝해! ‘멜라토닝크림’ TV광고 선포

‘멜라토닝크림’ 런칭 이후 첫 TV광고

동아제약은 색소침착치료제 브랜드 ‘멜라토닝크림’이 헤리와 함께한 TV광고를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광고 영상은 어린 나이에도 생길 수 있는 색소침착을 더 쉬운 방법으로 간편하게 치료하라는 멘트와 함께 ‘색소 침착, 뭘로 토닝해? 멜라토닝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멜라토닝크림은 2021년 발매 이후 학술 마케팅과 디지털 광고를 통해 거뭇거뭇한 색소침착과 기미, 주근깨가 고민인 2040 여성들을 겨냥하여 소비자 커뮤니티 케이션을 진행했다. 올해는 소비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 런칭 이후 첫 TV광고를 진행하게 됐다.

멜라토닝크림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여 과다 침착된 색소를 탈색해주는 ‘색소침착치료제’다. 이 약의 주성분인 히드로퀴논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효소인 타이로시나아제를 억제해 멜라닌이 과도하게 생산되는 것을 방지하며 멜라닌이 생성되는 멜라닌세포의 멜라닌소체 모양을 변화시켜 과다 침착된 색소를 탈색하는 이중 작용으로 피부 색소침착을 치료한다.

/이세경 기자

현대홈쇼핑, 탄자니아에 ‘의류 기부 캠페인’

현대홈쇼핑이 고객과 함께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의류를 기부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한다.

21일 현대홈쇼핑은 주한 탄자니아대사관, 대구파티마병원과 아프리카 의류 기부 캠페인 ‘우리 지구, 함께 입어요’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현대홈쇼핑이 캠페인 참여 고객을 모집하고 의류를 수거하면 주한 탄자니아대사관은 탄자니아 유관기관과 협의해 의류 통관 등 절차를

지원한다. 대구파티마병원은 현지 의료기관을 의류 배부처로 제공한다.

‘우리 지구, 함께 입어요’ 캠페인은 고객으로부터 입지 않는 옷을 기부받고 선별, 세척하는 과정을 거쳐 아프리카 동부의 탄자니아에 전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폐기물 감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에 고객이 동참한다는 점에서 뜻깊다.

/김서현 기자 seoh@

Samsung
Financial Networks

지금이 핏 타이밍



열심히 걷고,
건강습관 기록하고,
애니포인트도 받고!

30대인데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어요... 어떡하죠
ㅠㅠ

계단을 10개만
올라도赫赫거려요

금주·금연 미션 기록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대~

제일 적게 걸은 사람이
오늘 점심 쓰기!

영양제 후기 좋던데,
나에게도 효과가 좋을까?

아직은
건강한 거 같은데,
앞으로도 괜찮을까?

홈트 하다가
관절 나간 사람, 저요

건강검진 결과 봤는데
재검 항목이
대체 몇 개야...

건강 정보는
역시 믿을만한 곳에서
알려주는 게 좋지!

건강에 신경 쓰고 있다면, 쓰이기 시작했다면, 쓸 예정이라면-

삼성화재 애니핏 플러스

건강체크 세브란스 AI 연구소에서 개발한 질병위험 분석

일상케어 운동, 기록미션 달성하고 포인트 받고!

고고당케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생활습관 개선 프로젝트

내 몸에 **핏**하게, **애니핏 플러스**로 챙기세요



구독처
Google Play

구독처
App Store

지금이 삼성화재 **anyFIT PLUS** 다운로드 할 타이밍!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니핏플러스 이용 대상은 만 15세 이상,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본인인증이 가능한 사용자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 하였고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2-1-5852호(브랜드전략파트, '22.08.25~'23.08.24)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SK에너지, '산업전환 훈련센터' 유공기관 선정

SK에너지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컨소시엄에서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 SK에너지 서관희 엔지니어링 본부장(왼쪽 네 번째), 한국산업인력공단 김호연 직업능력국장(왼쪽 다섯번째) 등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에너지



오뚜기, '오뚜기프렌즈' 직원 전원 정규직 채용

(주)오뚜기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오뚜기프렌즈' 직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뚜기프렌즈는 20명의 장애인 근로자(2022년 말 기준)를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오뚜기프렌즈 임직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뚜기



태광산업-대한화섬, 주니어보드 7기 출범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사원·대리급 주니어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 조진한 대표이사(앞줄 왼쪽 다섯번째)와 정철현 대표이사(앞줄 왼쪽 여섯번째)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주니어보드 7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담당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태광산업



DGB금융, 8기 금융교육봉사단 발대식 개최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지역 내 금융교육 전문기관인 DGB금융체험파크에서 '제8기 DGB금융교육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김철호 DGB금융지주 그룹지속가능경영총괄 전무(왼쪽 네 번째)와 임직원 및 대학생 봉사단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DGB금융



한솔제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

한솔제지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20년 연속 제1부문을 1위로 뽑혔다. 한솔제지 한철규 대표(오른쪽)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수희 대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솔그룹

비 새는 공립미술관... '풍피두센터' 유치의 역설



홍경한의

시시일각

프랑스 파리 보부르 소재 '풍피두센터'는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과 함께 프랑스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힌다. 1977년 설립됐다. 풍피두라는 이름은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조르주 풍피두에서 따왔다.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조르주 풍피두 국립 예술문화센터'다. 전시실 외에도 카페, 공연장, 극장, 공립도서관, 자료실 등을 구비하고 있어 사실상 복합문화센터에 가깝다.

배기관과 통풍구가 그대로 노출된 7층 높이의 건물 자체부터 인상

적인 풍피두는 현대미술의 본거지답게 연간 수백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한다.

풍피두 센터가 오는 2025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들어설 전망이다. 19일 한화그룹과 풍피두는 프랑스 파리 풍피두센터에서 '풍피두센터 한화 서울'(가칭)을 설립·운영하는데 합의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2019년 개관한 중국 상하이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다. 개관일로부터 4년 동안 한국에서의 풍피두센터 운영권을 보장받고 매년 풍피두센터 소장품 중 대표작가 작품이 포함된 기획전시를 열게 된다. 운영은 한화문화재단이 맡을 예정이다.

사실 해외에 분관을 두거나 현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맺는 형식을 띤 글로벌 미술관의 세계 거점화

오래됐다.

왜들 해외 미술관 한국 분관 설치에 목을 매는 것일까. 이유는 여러 가지다.

일단 경제적 효과다. 세계적인 미술관을 데려올 경우 해당 지역은 주요 관광 명소가 되면서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 수 있다.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미술관은 지역의 비중 있는 고용주로서 전문직은 물론 시설 종사자 등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렇듯 여러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저명 미술관의 해외 분관은 미술이라는 고급 콘텐츠를 팔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돈벌이용 '프랜차이즈 사업'이기도 하다. 실제 이번 풍피두와의 협약으로 한화가 지급해야 할 로열티, 작품 대여료, 컨설팅 지원비 등만 해도 어마어마

할 것이다.

외국 미술관이 들어온다고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다. 우선 지금까지 대도시에서 미술관이 세워질 경우 그 러잖아도 심각한 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과 문화향유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풍피두센터 한국 유치는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공동체의 삶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미술관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 과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실제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곱씹게 한다.

비가 새는 공립미술관, 작품 한 점도 구입하지 못하는 소장품 예산, 철새 혹은 카르텔이 지배하는 미술관 인사... 이 또한 풍피두가 던지는 하나의 의미요, 필요한 자문(自問)이다.

/미술평론가

현대차 정몽구 재단, 내달 'ONSO WEEK 2023' 개최

'공존하는 미래, 변화하는 시대' 주제 ESG,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초청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소셜 임팩트 공간 플랫폼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오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임팩트 콘퍼런스 'ONSO WEEK 2023'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공존하는 미래, 변화하는 시대'를 주제로 ESG, 경제, 비즈니스, 환경, 과학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워크숍, 전시 등을 진행한다.

6일에는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이 '진화하는 지속가능성 트렌드'를 주제로, 문성후 법무법인 원 고문이 인생을 바꾸기 위해 알아야 할 키워드 'ESG', 한상



현대차 정몽구 재단 임팩트 콘퍼런스 'ONSO WEEK 2023' 홍보 이미지

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나와 지구를 위해 지금 당장 ESG'를, 윤지로 탄소로운 식탁 저자가 '식탁에서 만나는 공유가치'를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7일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경제학의 눈으로 본 기

후위기와 탄소중립', 김영덕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대표가 '기업의 미래를 바꿀 대항해', 신용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기술임원(NTO)이 'AI가 기후 지능을 탑재한다면?', 신민정 라잇루트 대표가 '패션의 변화, 배터리에서 시작하다', 이주봉

IBK기업은행 신임 전무이사에 김형일 임명

〈IBK기업은행 부회장〉

경영지원그룹장 등 주요보직 거쳐

IBK기업은행은 신임 전무이사(수석부회장)에 김형일 부회장(경영지원그룹장·사진)을 임명했다. 김성태 행장 취임 이후 약 3개월 만에 전무이사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김 전무는 1992년 기업은행에 입행해 약 30년간 전략기획부장, 글로벌



전행 경영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금호리조트, '피크닉 요트 패키지' 출시

금호리조트가 봄 시즌을 겨냥해 프라이빗 요트에서 남해안의 수려한 해상 경관을 즐기는 '어서와 봄, 피크닉 요트 패키지'를 출시한다.

최근 개방된 공간에서의 여가 선호도가 높아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패키지 상품으로, 넓은 바다 위

프라이빗 요트에서 남해 바다의 봄기운을 만끽하며 수제버거 세트까지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해당 패키지는 봄 시즌에 맞춰 출시되어 오는 4월 말까지 금호리조트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박정미 ◇과장 전보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박근오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지적조사기획단 기획관 오성익(이상 3월 24일자) △한국교통대학교 사무국장 강성섭 △공항공정과정 신윤근(이상 3월 31일자) △건설안전과장 이윤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진성(이상 4월 3일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 백승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호(이상 4월 10일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무국 임용 △정책사업실장(이사) 양윤승

◆부산시 ◇2급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3급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인재개발원장 이윤재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4급 △조직담당관 박석환 △재정혁신담당관 김창덕 △특별사법경찰과장 이상연 △복지정책과장 이병수 △문화시설개관준비과장 홍경애 △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장 박시환

부음

▲김병교씨 별세, 이창희(다올자산운용 대표이사)·영욱·영남·희정·승아(세성인터텍스 상무이사)씨 모친상, 양복수·김승현(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교수)·나중덕(대구의대학교 교수)·김태욱씨 장모상, 서효경 시모상 = 20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23일 오전 6시 30분, 02-3010-2000

▲김학선씨 별세, 김성완(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경희대의료원장)씨 부친상 =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23일 오전 9시, 장지 분당 메모리얼파크. 02-958-8011

▲홍성순씨 별세, 김재섭(전 강원도경찰청 인사계장)·재곤(홍천중학교 교장)·재중(전 대신증권 상무)·재정(김미소치과원장)씨 모친상, 조혜정(강원도청 보육지원팀장)씨 시모상 = 21일 오전 4시 54분, 강원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춘천 안식원. 033-254-5611

LOTTERIA 

촉촉한
반숙 계란

고소한 참기름
풍미를 더한
고추장 소스

한정
판매

한국의 맛을 버거에 그대로 담았다!

전주비빔
라이스버거

단품 6,900원 세트 8,800원

‘더치페이’ 문화에 대하여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며칠전 친구 둘과 만나 한참동안 얘기를 풀었다. 처음엔 그저그런, 아주 일상적인 얘기중에 친구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온라인에 등장한 ‘집들이’에 대한 얘기다. 친구들과 만나기전 뉴스를 접하고 의아하기는 했다. 내용은 그랬다. 직장 동료 여럿이 갓 이사한 동료 집에 초대받아 선물을 사 들고 놀러갔다. 동료들은 집들이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이야기를 했고 집주인이 음식과 술을 주문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당일 먹게 되는 음식값, 집주인과 초대받은 사람은 음식값을 더치페이하기로 했다. 막상 그렇게 하고보니 초대받은 사람은 땀띠를 한 기분이었다. 누리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집들이 선물도 더치페이하자고 해라” 등 의견이 분분했다.

우리로 한참동안 설전이 오갔다. 중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맞다. 하지만 놀란 것도 있다. 요즘 사라진 것이 집들이다. 신혼을 시작

하면서 누구나 당연히 집들이를 하고 아이들 돌잔치도 했다. 그런날이면 아내들은 음식을 장만하고 손님차례에 고역을 치렀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우리에게 집들이라는 것이 사라져갔다. 그런 건 아예 찾아볼 수 없는 때가 온 것이다. 우린 ‘더치페이’가 어떠한 것은 차치하고 집들이라는 걸 하는 너희들이 부럽다”는 것으로 결론났다. 세상살이가 바쁘고 동료들과는 파편화된 일상을 사는 이들에게 집들이하자고 집에 초대할 것만으로도 점수를 더 주자는 것이었다.

살면서 우리는 대체로 더치페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더치페이가 일상이라고 한다. 우리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더치페이는 잘 하지 않는다. 밥먹자고 부르면 부른 사람이 내는 편이다. 더치페이란 2명 이상이 모일 때, 그 비용을 한 사람이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고 n분의 1로 돈을 치르는 방식이다. 이것 때문에 갈등도 있다는 얘기가 없지는 않다. 문화가 달라지고 달라진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누리꾼들의 분분한 의견도 한참동안 진행될 듯 하다. 더치페이를 도와주는 앱이 많으니 달라지는 문화에 따라 기술도 발전해 여전히 신기할 따름이다.

예전에 나는 더치페이를 보고 경악한 적이 있다. 이 얘길 들으면 젊은이라도 경악할 듯 하다. 그리고 그건 아니라고 하지 않을까. 20여년 전 일본 도쿄 출장길에서다. 저녁무렵 우리 일행은 고기를 구워먹는 집에 들렀다. 옆자리에는 우리보다 너댓살 정도 적어보이는 일본인 넷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우린 내내 옆자리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와는 불판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저 평평한 불판 대신 옆자리는 네 구간으로 구분된 불판을 쓰고 있었다. 각 구간에 굽는 고기도 달랐다. 시켜놓은 술, 음료도 다르고 나중에 계산서도 각자에게 주어졌다. 거기서 들은 얘기로는 일본에는 더치페이가 아주 일상이어서 식당에서도 한 자리에서 불판을 같이 쓰지만 주문음식이 다르고 계산도 각자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서로다른 구간으로 절대 젓가락이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당시 더치페이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눈으로 실제 목격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암튼 달라지는 세상을 새삼 실감한다. 우리도 이런 일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걸 다른 이들도 알았으면 한다. 아직 어떻게 적응해야할 지 몰라서...

/건설부동산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반복되는 금융위기와 실수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2012년 5월 7일 저축은행 4곳의 영업이 정지됐다. 오전 11시. 한국저축은행 계열사인 진흥저축은행에서 73억, 경기저축은행에서 48억, 영남저축은행에서 18억원이 인출됐다. 솔로몬저축은행 계열인 부산솔로몬에서는 35억, 호남솔로몬 저축은행에서는 29억원이 빠져나갔다. 금융당국은 “인출규모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니 예금자들은 차분히 대응해 달라”고 했다.

지난 10일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유동성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급불능으로 36시간 만에 파산했다. 이후 SVB 불통은 엉뚱한 곳에 튀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전 세

계 금융주가 급락하며, 그레디트스위스(CS) 주가가 하락했다. 여기에 아마르 알 쿠다이리 SNB 회장이 CS에 추가 재정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주가는 스위스 증시에서 장중 30%나 폭락했다.

어디에서 어디로 불통이 뿔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은 양호한 유동성과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안정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저들은 은행으로부터 시작된 불통이 우리에게 제한적인 것은 확실할까.

2012년 저축은행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등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5%대까지 금리를 올리며 발생했다. 시차를 두고 연체율이 오르며 부실이 확대

됐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제일 약한고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지목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금리가 오르며 부실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PF 대출이 급격히 오른 여신전문회사와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금융당국 관리감독이 닿지 않는 곳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감사관한을 갖고 있어 금융당국이 관리할 수 없다. 불통이 튀는 시기, 제일 약한고리로 작용할 경우 피해가 겹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고 한다. 또 다른 안일함으로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yu115@

오늘의 운세3월 22일 (음 2월 1일)<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신용을 중시 여기고 작은 약속도 잊지 마라. 48년생 원하던 일이 손에 주어진다. 60년생 새로운 이성이 다가오나. 72년생 우울증이생기면 재발이 되니 극복하려는 본인노력도 동반되어야. 84년생 계약하여 재물 이익 발생한다.

소

37년생 홀로자족하며 지내고 있어도 땅속에 보물이 있으니 행복. 49년생 다이나믹한 인생. 61년생 혼자서 가고 혼자서 멈춘다. 73년생 누군가에게는 호운이요 누군가에게는 과유불급이 되는 세상사. 85년생 강박관념은 항상 진행형.

호랑이

38년생 어두운 얼굴은 복을 깎아먹는다. 50년생 음식보다 양자를 선택하게 된다. 62년생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걸. 74년생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86년생 보이는 것도 있고 고상하게 향기를 내는 사람도 있다.

토끼

39년생 경계를 넘는 것을 두려워마라. 51년생 잘 살려서 피할 것은 피해볼일이다. 63년생 마음이 편안하니 세상이 아름답다. 75년생 주변의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87년생 바다건너에서 소식과 함께 그리운 사람이 찾아온다.

용

40년생 초가삼간 태우는 격. 52년생 십년 묵은 체증이 해소. 64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심정. 76년생 사람의 얼굴을 보고 성격이나 기질을 파악하는 것을 관상이라 한다. 88년생 힘내라는 말 대신 실질적인 힘을 실어줘라.

뱀

41년생 안중에 휘말리면 본진 찾기 힘들다. 53년생 영업장에서 인사 없이 주문부터 받지 말자. 65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77년생 일할 때가 안심이 된다. 89년생 사별이라는 브랜드를 많이 알 것이다 사야 될지 말지는 선택.

말

42년생 친구모임이 있는 날. 54년생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좋은 말로 속삭이는 사람을 경계. 66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겸손하게. 78년생 평소 실력으로 어깨를 으쓱할 일이 생긴다. 90년생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자.

고양이

43년생 먼저 칭찬해주면 마음을 얻는다. 55년생 가족여행을 포기하더라도 원형은 말린다. 67년생 어디에 행운이 있는지 모르니 준비. 79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 91년생 업무능력과 업무시간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니 시간 끌지 말라.

원숭이

44년생 종종 긴 숨을 쉬고 생각을 가다듬자. 56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걸어간다. 68년생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80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비켜서는 것이 현명. 92년생 제3자와의 긴 비밀은 없다.

닭

45년생 아진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는다. 57년생 조연도 사람을 봐가며 들어야 한다. 69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 주의. 81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극복해야 한다. 93년생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직업으로 전환점이다.

돼지

46년생 지나치게 강경하면 부러지기 쉽다. 58년생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다. 70년생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 겸손. 82년생 불운의 요소를 안다면 바뀌가면서 복덕을 증진시켜보라. 94년생 지금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

돼지

47년생 귀인이 나타나니 운이 활짝. 59년생 지는 일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71년생 문서 운이 길하니 매매도 원만. 83년생 노력에 의해 불행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된다. 95년생 사람이 채우려는 재물은 끝도 없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



김상회의四季 내 머리를 못 깎는 이유

“중이 제 머리 깎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실제로는 출가 승려들이 자기머리를 못 깎는 건 아니라고 한다. 혼자서 깎을 수는 있지만 남의 손을 빌리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서로도를 때 공생과 화합을 이루며 훨씬 결과가 좋아짐을 함축하고 있음이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 속담은 자기스스로는 훌륭한 역량이 있어 주변사람을 잘 도와준다 하더라도 막상 자신의 일은 잘 다루지 못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음을 뜻한다. 남의 일을 도울 때에는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수 있어 지혜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만 자신의 일이 되면 감정이 더 이입되어 사심이 작용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스포츠경기를 해설하는 해설위원들이 경기를 보며 실시간적으로 선수들의 뛰는 모습을 보며 이런저런 지적과 해석을 내릴 때도 비슷한 생각이 들게 한다.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보다 명료하게 상황파악이 되는데 직접 뛰는 선수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바둑이나 장기훈수를 둘 때도 보면 보이는 현상이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꽤 보이는데 시합당사자들은 그 판 속에서 전체수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의 것은 잘 보이지만 자기 것은 잘 보지 못하는데 한 마디로 게임의 판 속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적 관점에서보자면 착(着)을 버리지 못하면 불행을 어깨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것과도 같다. 작은 집착의 줄임말이요 다른 말로는 번뇌이다. 내 문제에 대해서는 자존심이라는 상과 애착이 강하니 늘처럼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수렁과도 같이 돼 버린다. 그러니 답은 간단하다. 발을 빼면 된다. 그럼 발은 어떻게 빼는가. 그냥 바라보라. 바라보면 상당히 객관적이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5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5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작가능형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물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6				2	7	9
	9		4		6	3
8		1			3	
	6				2	
	5			7		6
4	2		9		8	
1	3	8				2

			5			
		9	3			5 1 8
8	9					1
2						9 7
				5	4	
9	2	6				
				7		

정답

1	7	9	8	2	5	6
2	6	5	2	9	7	8
3	8	8	1	6	9	2
9	1	2	7	8	6	5
8	2	7	6	5	1	9
5	6	2	2	9	1	7
8	9	1	8	7	2	6
6	2	2	9	1	8	7
7	5	8	9	2	6	8

9	8	6	2	1	5	7
5	2	1	8	7	9	2
8	2	7	5	6	9	1
2	7	9	8	8	7	5
1	5	8	9	2	7	6
7	9	2	2	1	8	6
8	1	5	6	9	2	8
6	8	2	7	8	5	1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수도권大 쏠림에 지방大 ‘극한경쟁’… 획기적 정책 추진을”

수험생 수 10년전 보다 28% 감소
서·연·고 모집정원은 3.8% 증가

“서울권 주요대 입시문턱 낮아져
지방권 대학 정원감축효과 미미”

인구 절벽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은 줄고 있지만 상위권 대학의 정원은 늘어나면서 지방대학의 정원 모집이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입 정책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수도권 선호 현상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21일 입시계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상위권 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이 대입 모집 정원과 수험생 수를 10년 전과 비교한 결과, 수능 응시생은 28% 감소했지만 서연고 모집 정원은 3.8%, 주요 10개 대학은 4.5%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 장벽이 낮아지고 있



지난달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는 모습이다.

이는의학계열 전문대학원의 학부 전환과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 정원 외 신설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의학계열 선발인원은 2013학년도 2980명에서 2023학년도 6596명으로 121.3%(3616명) 수준으로 높게 증가했다. 이공계 특수대학 인원도 2013학년도 1280명

에서 2023학년도 2160명으로 880명(68.8%) 증가해 적지 않은 규모이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따라 수능 응시인원은 2013학년도 62만1336명에서 2023학년도 44만7669명으로 17만3667명(28.0%)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권 주요대, 의학학계열, 이공계 특수대

학 정원 확대로 입시 문턱이 낮아져 상위권 학생들이 더욱 몰리는 양상을 보인다”며 “지방권 대학의 정원 감축 효과는 실질적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3학년도 대학 정시에서는 2, 3등급대 학생들도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대학 충원난이 구체화됐다.

이렇듯 지방대학들의 정원 감축 노력에도 실질적인 구조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현식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역에서 젊은 층을 수요해야 하는데 지역별 격차가 심각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역 내 일자리는 많지만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가려는 사회적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지역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 원인으로 문화적 요인을 꼽으며 “대학에 올 때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과 재정에 대한 한계, 문화적 공유

가 안 되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의 ‘위기의 지방대학, 원인과 해결방안(2022)’ 보고서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방대 위기는 우리 사회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는 곧 취업자들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이어졌고, 수도권 취업자 수가 비수도권을 능가하게 됐다.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 취업자는 1352명이지만 비수도권 전체 취업자는 1338명으로 더 적게 나타났다.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 등 지역인재 우대정책 확대’가 제시됐다. 지난 2014년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이촌한강공원에 ‘부유식 수영장’ 만든다

오세훈 서울시장 ‘아트피어’ 구상
수상레저 넘어 문화예술 복합공간

이촌한강공원에 사시사철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부유식 수영장과 문화예술 공간을 갖춘 복합 한만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9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관광명소인 ‘해수욕장(Harbour bath)’을 방문한 오세훈 시장이 한강에 아트피어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고 21일 밝혔다.

코펜하겐 브뤼게섬 해수욕장은 2003년 코펜하겐시에서 예산을 들여 만든 덴마크 최초의 부유식 공공수영장으로, 연평균 30만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다.

한강에 생기는 부유식 수영장은 수상레저뿐만 아니라 일 년 내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인 ‘아트피어(가칭)’ 시설 중 하나다. 아트피어는 전



한강 아트피어 조감도. /서울시

시와 공연이 열리는 문화예술시설과 수상레저기구·선박 계류시설(승·하선, 정박, 보관 시설)을 의미하는 피어를 결합한 명칭이다.

시는 “유명 도시의 강·항구·해안에 설치된 부유식 수영장을 벤치마킹해 ‘한강 아트피어’를 야외 수영장의 개방감과 한강에서 수영하는 듯한 이색 경험을 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브뤼게섬의 ‘하버

배스’, 프랑스 파리 센강의 ‘조세핀베이커풀’, 독일 베를린 슈프레강의 ‘바데시프’ 등이 연안 자연 자원을 활용한 부유식 수영장의 대표적인 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해수욕장에서 시설 관계자로부터 인명안전 및 수질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부유식 수영장 사례를 접목해 한강의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구상했다고 시는 전했다.

이촌한강공원에 신규 조성되는 ‘한강 아트피어’에는 선박 공공 계류시설과 문화·예술·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마리나시설이 설치된다. 대상지는 현재 이촌한강공원 내 청소년 수상체험·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북선나루터 자리다. 한강아트피어 조성에는 약 30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연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5년 착공해 2026년 개장한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 전통시장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

스페인 ‘산타 카테리나 시장’ 벤치마킹

서울시는 디자인을 혁신해 쇠락한 시장에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산타 카테리나 시장’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노점 중간을 아케이드로 덮는 천편일률적인 전통시장이 아닌 지역성·역사성·특수성을 살린 독창적 외관에 예술적인 실내디자인을 접목해 사람들이 자주 찾고 싶고 오래 머물고 싶은 혁신적인 공간으로 시장을 재탄생시킨다는 목표다.

대상은 지역 자원이 풍부해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쉽고 상인회가 조직돼 있으며, 상인들의 변화와 혁신의 의지가 높은 서울시 소재 골목형 전통시장(단독시장)이다.

시는 디자인 혁신을 위해 건축사, 교수 등을 총괄기획가로 선임하고, 계획수립부터 준공~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올 20억 투입, 소부장기업 25곳 육성

경기도, 4년간 100대기업 육성 목표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경기도 소부장 100대 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매년 25개 기업을 선정해 자금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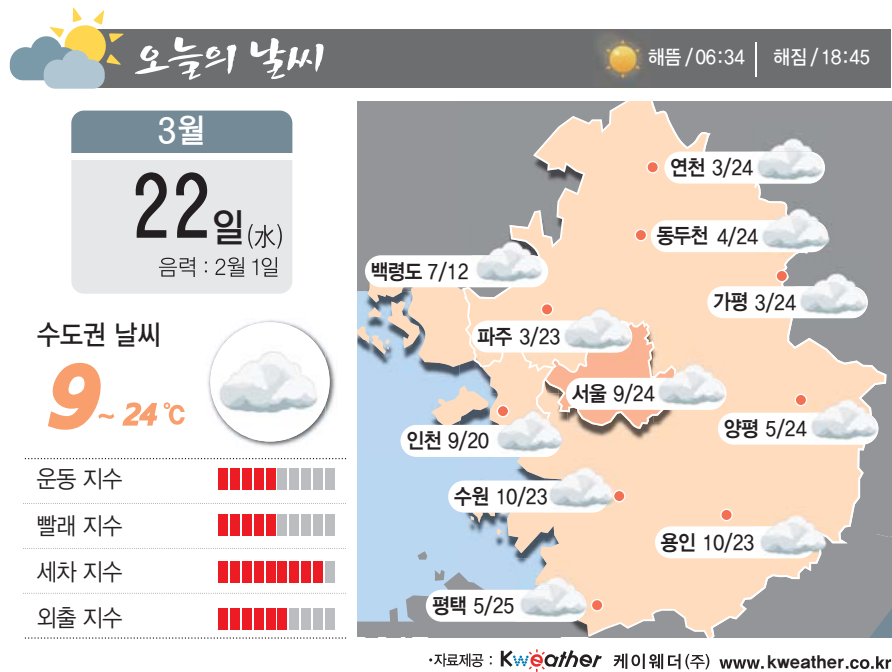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 20억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총 25개 내의 기업을 발굴해 최대 75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독립을 위해 경기도가 2021년부터 중점 추진했던 사업으로, 평균 4.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도내 소부장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25개 내의 기업을 선정해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획득,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미래 제조업(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경쟁력의 토대인 소부장 선도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며, 도내 G-펀드, 정책자금, 해외 마케팅 등 패키지를 연계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부장 100대 선도기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와 자금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의정부(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아마존, 또 9000명 추가 해고…“불확실성 고려” /사진 뉴시스
▲푸틴 “아프리카와 관계 심화는 러시아의 핵심 목표”

▲중러 정상 만난 날 크림반도 폭발…우크라이나 “러 순항미사일 파괴”
▲세계서 가장 출장비 비싼 도시 ‘뉴욕’…서울은 아시아 5위



▲“이기시다 총리, 오늘 우크라이나 방문… 젤렌스키와 회담” /사진 뉴시스
▲중국 시장서 일본 자동차 기업들 ‘고전’…전기차 경쟁력 때문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라이프]
편의점
플라스틱 줄이기
기후위기 극복 앞장
나



Life

[인터뷰]
“국민고기 ‘한우’
돼지고기 가격으로
즐기세요”
L2



불확실성 시대... 달라진 재테크로 ‘위기 속 기회’ 잡아라

고금리 영향에 자산 ‘롤러코스터’
부동산 투자 줄고, 예·적금 늘어
주식투자, 부동산 세테크 전략 제시

“불황은 언제나 피할 수 없다.”
워렌 버핏(92)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뉴욕타임스에 이 같은 글을
남겼다. 자본주의 속성상 불황은 주기
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마
주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다만 버핏
은 이와 함께 “불황이 기회를 만든다”며
“모두가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고, 모
두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느껴야 한다”
고 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시대다.
지난해 미국연방준비제도(Fed)는
40년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
해 금리인상에 나섰다. 한국은행도 금
리 역전차를 막기 위해 금리인상에 속
도를 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0.
75%에서 1년 6개월만에 3.5%까지 뛰
었다. 최단기로 급등락했던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14여 년 만이다.

1년 만에 갑작스럽게 고금리 상황이
펼쳐지면서 자산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변화 등으로
주식과 채권값이 급락했다. 금융 시스템
불안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
I)는 주의단계(임계치8)에 진입했다.

부동산시장도 고금리에 투자수요가
줄어들며, 거래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감
소했다. 미분양 주택도 급격히 늘었다.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문치돈은 은행
권의 예·적금 계좌로 몰렸다. 지난해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 5
대 시중은행의 잔액은 818조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63조원 늘었다.

이제는 어디에 탐욕을 부릴 지 결정
해야 할 때다.

다만 올해 경기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주식도 선
뜻 매수하기 어렵다. 더구나 금리상승
에 따른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기업 부
도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실리곤
밸리은행(SVB)의 파산과 크레디트스
위스(CS) 사태여파로 국내 증시는 또
다시 휘청였다.

부동산시장은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
투자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미분양
주택 또한 늘고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불확실
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를 주제로
22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100세플러스 포럼 시
즌1’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김영익서강대학교 경영
대학원 교수의 ‘글로벌경제와 한국경제
전망’을 시작으로, 염승환 이베스트투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40~14:00
14:00~14:20	축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14:20~15:10	기조강연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15:10~15:50	강연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15:50~16:30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사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테크 전략
16:30~17:10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본부장 :은퇴준비와 재테크 전략

자증권 이사가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
략을 발표한다.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
터 세무사는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테크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특히 부동산
재건축 주택 투자와 부동산 증여를 조
명해, 절세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본

부장은 ‘은퇴준비와 재테크전략’으로
퇴직 후 노후생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평생소득 대책을 제시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융불안 확대... 새로운 수혜종목은

염 승 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증시염탐정’, ‘염블리’로 유명한 염승환 이
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이번 재테크 포럼에
서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새로운 주식투자
전략을 공유한다.

염승환 이사는 ‘2023 100세 플러스 포럼’에
서 ‘경제환경 변화와 주식투자 전략’을 주재
로 강연한다.

최근 미국 실리곤밸리은행(SVB) 파산과 스
위스 2대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 부실

사태 등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이 확대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할 계획이다.

염승환 이사는 이번 포럼에서 ▲2023년 경제 전망 ▲94년의 향기가
나는 시장 ▲증시 전망 및 투자전략 등 소주제를 놓고 관련 수혜 종목을
다룰 예정이다.

또 올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정책 등을 분석하고 글로벌 경제를 전망
한다.

-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
- 온라인 주식 영업, 교육 및 홍보 담당
- KBS, MBC, SBS, YTN, 연합뉴스TV 등 고정패널 출연 중
- POSCO, LG전자, 포항공대, 한양대, 고려대, 국회 등 강연
-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77’

부동산 시장 트렌드 맞춘 ‘세테크’ 전략

호 지 영 우리은행 세무사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는 ‘2023 100세 플러
스 포럼’에서 부동산 규제완화에 발맞춘 절세
비법을 공유한다.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상반기 주택 매매가격
은 지난해에 이어 먹구름이 끼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택 구입 의지가 있는 시민 가운
데 40%가 현 시세 보다 80% 아래에서 매매
를 희망하고 있다. ‘시세 이상에 구입하겠다’
는 답변은 4.73%에 불과하다.

거래절벽 또한 역대 최악이라는 분석이다. 고금리, 저성장 등 겹악재에
월세 선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호지영 세무사는 급변하는 부동산 시
장에 딱 맞춘 ‘세테크’ 전략을 귀뜸할 예정이다.

호지영 세무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일시적 2주택 처분기
한 연장 등 올해 주목할 만한 부동산 세제 개정사항을 콕 짚어준다. 불
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는 방법도 제시한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는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줄
예정이다. 증여, 비과세 요건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공유할
전망이다.

- 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 전 대신증권 WM추진부
- 전 대신증권 연금사업본부
- 전 KPMG 삼정회계법인 컨설팅본부

은퇴 후 전략적 자금운영 방법 제시

김 동 엽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본부장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본부장은
‘2023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은퇴 후 전략
적인 자금운영 방식을 소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6세를 나타
내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장수 시대를 대비해 은퇴 후
자금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은퇴 준비 전문가로 통하는 김동엽 본부장은
포럼에서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계속 내야 하나요?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 은
퇴 후 노후 대비 방법을 제시한다.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퇴직연금시장에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어려운
내용과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확하고 유익한 정
보를 준비했다.

최근에는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가입여부와 대상여부 확
인 방법도 같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금 수령 후 관리 방법과 퇴직연금 세금 납부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도 제시한다.

- 미래에셋 투자증권센터 교육콘텐츠 본부장(상무)
- 현 한국FP협회 이사
- 건국대 부동산 경영관리 석사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토티님, 이번주 내 콘테 감독과 결
별”
▲손흥민 “클린스만 감독 흔들지 말고
뚝뚝 뭉쳐야”
/사진 뉴시스

▲프로농구 캐롯 운영사 데이원, 캐롯손
보와 스폰서십 끝
▲우승에 목마른 트라우트 vs 오타니,
22일에 한 명만 웃는다



▲새 전용버스받은 클린스만호...“힘차
게 달리겠다”
▲“성에 차지 않아”...이승엽 감독, 계속
되는 ‘유격수 고민’
/사진 뉴시스